

제1장 일생의례(一生儀禮)

일생의례란 사람이 일생을 통하여 반드시 거치는 각종의례를 말한다. 즉 태어나서 죽기까지를 말하는데 통과의례(通過儀禮)·추이의례(推移儀禮)라고도 한다. 출생하기 전 기자(祈子)를 포함한 출생의례, 성년의례, 혼인의례, 회갑, 상장례(喪葬禮), 제례 등이다.

보령지방에서 행해지던 전통의 일생의례와 현재의 일생의례를 기술하고자 한다. 전통의 일생의례는 문헌과 화산동 박정순 선생님의 도움으로 정리하였다.

1. 출생

1) 전통의례

(1) 기자(祈子)

기자는 아들이나 딸 낳기를 기원하는 행위이나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들 열을 낳았어도 아이를 낳을 때는 딸보다 아들을 좋아했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가계를 이어갈 아들을 바라는 면이 강하였다.

① 삼신(三神) 받기

아이가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삼신의 점지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다. 이 신은 한 집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여기며, 아이가 태어나 열 살이 될 때까지 아이를 보호해주는 신령으로 생각한다.

집안에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삼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삼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삼신을 받는 곳 중 가장 일반적인 곳은 샘이다. 좋은 날을 택하여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새벽에 떡이나 밥(세 그릇)을 해가지고 샘에 가서 치성을 드린다.

이 때 샘물에 바가지를 띄우고, 제를 마치면 바가지에 물을 가득 퍼와 밥과 미역국과 함께 새댁이 거주하는 방의 윗목에 놓고 축원을 한다.

소의 삼신을 받는 경우도 있다. 소는 사람처럼 10달 만에 새끼를 낳기 때문에 소의 삼신을 받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믿었다. 소의 삼신을 받으려면 소가 새끼를 낳은 집에 주인 몰래 들어가 소가 새끼를 낳은 곳에 짚을 깔고, 그 위에 여자 속곳을 펴고 가져간 국 세 그릇, 밥 세 그릇, 물 세 그릇을 올려놓고 “아이 있게 해주소.”라고 비송한다. 그런 후 가지고 갔던 것들을 모두 챙겨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기거하는 방에 다시 차려 놓는다. 그리고 무당을 불러 삼신을 받는다. (고대도).

② 절 치성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거듭 절을 하면서 아들 점지를 기원하는 불공이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다. 절에 치성을 드려 낳은 자식은 평생 절을 위해야 하는데, 위하지 않으면 좋지 않다는 믿음이 있었다.

③ 기타의 방법

집 안에서는 장독대 위에 깨끗한 돌을 주워다가 단을 만든 후 새 바가지로 새벽에 샘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떠가지 않은 샘물을 떠다 놓고 절하면서 옥동자를 점지해 줄 것을 1년 내내 빌고 칠월칠석날에는 장독대에 떡시루를 놓고 빌기도 하였다. 또 고목나무에 매일 새벽 미역국과 밥을 놓고 빌면 삼신을 받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딸을 계속해서 낳을 경우,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여자 아이 이름에 ‘男’자를 넣기도 하였다. 여자 이름에 ‘男’자가 들어간 것은 모두 아들을 기원하는 의미이다.

웅천읍과 주산면 지역에서는 웅천읍 대창리에 있는 미륵불의 얼굴을 쪼아다가 끓여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미륵불의 얼굴을 쪼아내어 움푹 패인 채로 지금도 서 있다.



웅천읍 대창리 미륵불의
패인 얼굴(2007.7.5)

(2) 해산

임신부는 많은 금기사항이 있었다. 오리고기를 먹으면 손·발가락이 붓기 때문에 먹지 말 것이며, 상어고기는 살갓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토끼 고기는 아이의 눈이 빨개지므로, 뱀장어는 아이가 뒤뜰므로, 식초는 뼈가 연약해지기 때문에, 개고기는 효도를 못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였다.

임신 중에 불난 곳에 가면 부정 탄다고 하였고(불부정), 찬물로 목욕하면 아이가 경기한다고 하였으며, 임부가 모서리에 앉으면 출세를 못한다고 하였고, 산달에 방고래를 넘으면 언청이를 낳는다고 하였다. 또한 집안에 임신한 사람이 있는 집, 특히 산달이 된 사람이 있는 집의 가족들은 짐승을 잡거나, 잡는 것을 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이가 죽은 동물의 행동을 한다고 믿었다. 초상집에 가면 부정이 든다고 믿어 임신부는 물론 가족들도 가지 않았다.

섬 지역에서는 임신부에 대한 금기가 철저하였다. 임신부가 어장하는 집에 들어오면 그 해 흥어를 한다고 믿어 금줄을 치기도 하였다.

해산은 안방에서 짚을 깔고 하는데 한 집에서 둘이 해산할 경우, 한 사람은 친정이나 남의 집에 가서 낳아야 한 사람이 치는(잘 못되는) 일이 없다 하였다. 또 새로 지은 집에서는 부엌에서 낳아야 좋다고 하였으며 해산 구완은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 동서가 대부분 하고, 사람이 없을 경우 동네의 순산부가 하기도 했다.

해산에서의 가장 큰 일은 순산인데 순산한 산모가 산모의 허리를 세 번 넘으면 순산한다고 하였으며, 또는 순산부의 치마를 입힌다든지 아주까리대를 해산방 네 구석에 세워 놓고 해산 후 곧 치운다든지, 달걀을 먹으면 달걀처럼 미끄럽게 순산한다고 하였다.

순산이 안 되면 짚을 한줌 추려 묶어 안방 윗목 벽에 못을 두 개 박고 걸쳐놓아 삼신의 신체로 삼고, 그 밑에 찬물을 한 사발 놓고 빌었다. 아기를 낳으면 짚을 내려 퍼 놓고 그 위에 밥과 미역국을 끓여 놓는다. 삼신에게 미역국을 바치는 것은 그 후로도 3일, 14일, 21일, 100일, 둘에 행한다.

해산 후 태는 짚으로 싸서 산모 옆에 놓아 두었다가 3일 만에 방에서 내가고, 아기는 목욕을 시키고 ‘배냇저고리(깃과 셔를 달지 아니한 간난아이의 저고리 : 일안저고리라고도 부름)’를 입혀 준다. 이 때 배개는 속에 스승(조를 보령지방에서 스승이라고 부름)을 넣어 사용한다. 한 이레, 두 이레, 세 이레에 국과 밥으로 삼신상을 차려 놓고 아기가 복이 많고 명이 길게 해달라고 빈다. 태는 출산 3일 후에 치우는데 왕겨에 묻어 애 낳을 때 깔았던 짚(옛날에는 방바닥에 자리를 깔았거나 흙바닥이었기 때문에 짚을 깔았고 종이도 나오면서 종이를 칸 뒤에 짚을 깔기도 했다)도 함께 태운다.

이 불을 ‘삼불(또는 싹불)’이라 하여 손 없는 방향에서 태를 태운 재는 산의 생나무 밑에 묻지 않고, 그냥 쏟아 부었다.

태는 아기의 배꼽에서 한 뼘 정도 떼어서 자를 곳을 중심으로 배 쪽과 반대쪽으로 손으로 훑어서 피를 양쪽으로 밀어 보낸 후, 배쪽과 반대쪽을 묶고 가위로 자른다.

이 때 피가 나오면 아이는 죽는다고 하였다. 배쪽에 남겨진 땃줄을 배꼽 위에 서려놓고

숨으로 덮어주면 일주일쯤 후에 말라서 떨어진다.

애기를 낳으면 금(禁)줄을 단다. 첫국밥을 지으면서 즉시 왼 새끼줄을 꼬아 아들일 때는 숯, 고추, 종이를 끼우고, 딸일 경우에는 숯과 종이를 끼워 대문에 걸어 놓아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 왼쪽의 의미는 비밀상적인, 거룩하고, 신성하며 옳은 것이다.

도깨비와 씨름을 할 때 왼쪽으로 넘어뜨려야 이긴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왼쪽으로 끈 새끼줄은 잡귀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흰 종이는 신성한 구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천면 외연도에서 당제를 지낼 때 제당 주위의 대나무에 ‘질지’라고 하는 백지를 매단다. 숯은 정화(淨化)를 의미한다.

금줄은 세이레(21일)에 걷는다. 병원에서 출산하기 시작하면서 금줄은 사라지게 되었다. 첫이레, 두이레, 세이레에는 삼신상을 차리며, 세이렛날 금줄을 걷고 집안 노인들이 아기 구경을 오고 세이레 안에는 초상집 출입을 금하고 개고기, 닭고기 등을 먹지 않는다.

아기를 낳은 지 3일이 지나야 젓이 나오므로 이 때부터 젓을 먹이는데 산모가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젓구멍이 막힌다고 하여 먹지 않았다. 젓이 잘 나오지 않으면 돼지족을 삶아 먹기도 하였다. 아기의 외출 때는 부정 방지와 잡귀가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술때를 붙인다’ 하여 술 밑바닥의 검정 끈을 아기의 이마에 칠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고추를 아기의 저고리 것에 달아주기도 하였다. 아이의 명이 길고 다복함을 바라는 의미로 동네에서 곱게 장수하는 노인의 옷조각 등을 가져다가 옷을 지어 입히기도 하였다.



금줄(1996.10 주교면 신대리)

(3) 해막(解幕)

보령지방의 일부 섬에는 1960년대까지 해막이라고 불리는 가옥이 있었다. 섬 지역에서는 당제를 매우 엄격하게 지내고, 당제 지내는 동안 부정을 가려야 되는데, 대표적인 부정이 초상, 피 등이다.

초상은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피에 의한 부정은 막을 수 있다. 당산이나 당제 관련 음식을 만드는 데, 여자들 특히 달거리를 하는 젊은 여자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것이 모두 피에 의한 부정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출산을 앞둔 부인은 더 문제이다. 출산을 미룰 수도 없고, 출산을 하면 다량의 피가 나오므로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해막이다.

해막은 당산과 멀리 떨어져 있고,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에 지은 방 2칸, 부엌 1칸 정도의 작은 집이다.

당제기간에 출산 예정인 임산부가 도와줄 사람과 함께 들어가 아이를 낳고 당제가 끝날 때까지 생활하는 것이다.

해막에서 여럿이 해산을 하게 되면 먼저 아이를 낳은 순서대로 아랫목을 차지한다.

해막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도 집에서 낳았을 때처럼 삼일 만에 아이를 씻기고, 잘라 놓았던 태(胎)도 해막 주변에 묻는다. 해막에서 낳은 아이를 특별히 ‘해막둥이’라고 불렀다. 해막둥이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자라는데, 이는 당제 기간에 태어난 아이이므로 산신이 돌보아주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일단 해막에 들어간 사람들은 마을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해막 사람들과 만나면 그 사람도 마을로 들어올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급박한 사정으로 마을과 연락할 일이 있으면 소리를 질러야 한다. 이처럼 해막 사람들은 마을의 모든 것들로부터 격리되었기 때문에 물조차도 마을에서 길어다 먹을 수 없었다. 장고도에 근래까지 남아있었다.



장고도의 해막 건물(1993. 5)

(4) 백일

아기를 낳은 지 백일에 잔치를 하는 것은 아기 낳은 것을 널리 알리는 뜻과, 떡 돌리기라 하여 여러 집에 떡을 돌려야 아기가 무병장수한다는 풍습과, 수수팥떡은 아기의 살(煞)을 풀어준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백일에는 백무리, 수수팥떡, 인절미를 비롯한 떡 종류와 미역국, 백반, 나물을 차리는 것이 대표적 관습이다. 수수팥떡은 붉은 수수가 귀신을 물리쳐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백무리는 흰색처럼 늘 깨끗하고 좋은 일만 있으라는 의미이다.

인절미는 아기의 명이 길어지라는 의미로 만들어 준다. 첫돌처럼 큰상을 차리든가 아기 옷을 입히는 의례는 없고 친척, 친지, 이웃을 초청하여 음식을 먹고 백설기, 수수떡을 돌린다. 이 때 친척이나 동네 사람들은 아기 선물을 해주며 친정어머니는 보통 포대기를 해준다.

(5) 돌

돌잔치는 집안의 경사로 사람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큰 상을 받는 것이자 처음의 생일

잔치인 것이다. 옛날의 아기 옷차림은 아들은 연두색 저고리, 연가지색 바지, 남색 조끼, 연두색 마고자, 분홍색 두루마기, 검은색 복건, 수 주머니 등이고, 딸은 노란색 단속곳, 다홍이나 진분홍 치마, 노란색 반희장 저고리, 오색주머니 등이다. 돌상에 놓은 물건을 잡는 것을 보고 아이의 장래를 짐치기도 하였다.

돌상 차림은 다음과 같다.

- 떡류(백무리, 수수팥떡, 송편을 큰 접시나 쟁반에 담아 놓음)
- 과일(떡과 과일은 전면에 한 줄로 놓음)
- 쌀(상 앞쪽의 가운데에 소복이 놓음)
- 실타래(명이 길라는 의미)
- 돈(돈을 잘 벌라는 의미)
- 연필과 책(공부를 잘하라는 의미)

돌떡 등 음식을 이웃에게 돌리는데 음식을 받은 집에서는 그릇을 그냥 보내지 않고 성의껏 무엇이라도 담아서 보내려고 한다. 대개 돈을 넣어 준다.



돌상(1989, 주교면 관창리)

2) 현재의 출생의례

현재의 출생의례는 옛날의 전통적 절차나 관습은 지켜지지 않는다. 전통적 기자회견은 찾아볼 수 없고, 병원이나 약에 의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1980-1990년대에는 일부에서 출생할 태아의 성을 미리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해산은 거의 모두가 병원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도 부정은 지켜지는 편이다. 만약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 달이 다가오면 시부모 등 가족들은 상가에 출입하지 않는다.

산모와 함께 아기가 퇴원해오면 전통적인 세이레(21일)도 거의 지켜진다. 이때는 가족 이외의 외부인과 가급적 접촉을 금한다. 백일이나 돌에는 전통적인 의식이 많이 행해지기도 하며, 특히 수수떡을 만드는 습관은 계속되고 있으며 백일이나 돌에는 주변에서 옷, 기념반지 등을 선물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돌잔치를 뷔페음식점에서 하기도 한다. 가족 친지들이 모여 음식을 즐기면서 잔치를 하는 것이다. 하객들은 반지 등을 선물한다.

2. 성년의식(成年儀式)

1) 전통관례(傳統冠禮)

관례란 양반가에서 어른이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남자는 상투를 짜고, 여자는 쪽을 찌는 의식이다. 남자나이 15세에서 20세 사이에 땡아 내렸던 머리를 올리고 머리에 복건(幘巾), 초립(草笠), 사모(紗帽), 탕건(宕巾) 등의 관(冠)을 씌우는 의식인 것이다.

관례는 반드시 부모가 기년(基年) 이상의 복상(服喪)이 없어야 행할 수 있었고 관자(冠者)가 효경(孝經), 논어(論語)에 능통하고 예의를 대강 알게 된 후에 행하며 날짜는 고례(古例)에 길일을 가려서 행했으나 정월 안으로 하루를 택하여 행하면 되고 관자의 아버지, 할아버지 중에서 주인이 되어서 3일 전에 사당에 고하고 친구 중에 덕망있고 예를 잘 아는 이로 손님이 되기를 청하여 관례 전일에 유숙케 한다. 당일이면 관자·빈(손님)·찬(빈을 돕는 사람)과 그 밖의 손님들이 모여 3가지 관건(冠巾)을 차례로 씌우는 초가(初加)·재가(再加)·삼가(三加)의 순서가 끝나고 초례(醮禮)를 행한 뒤 빈(손님)이 관자에게 자(字)를 지어 준다.

예식이 끝나면 주인(관례의 주재자)이 관자를 데리고 사당에 고한 다음 부모와 존장(尊長)에게 인사를 하고 빈에게 예를 행한다.

여자는 15세가 되어 비녀를 꽂는 것을 계(笄)라 하고, 혼인 뒤 시집에 가서 사당에 고하고 비로소 합발(合髮)로 남자하여 성인이 된다.

이와 같이 남자는 관례, 여자는 계례(笄禮)를 행한 뒤에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었으며, 갓을 쓰지 못한 자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언사(言辭)에 있어서 하대를 받았다.

이 관례는 1895년 단발령이 내려진 이후 우리나라에서 점차 사라졌다.

2) 현재의 성년의식

오늘날의 성년이라 함은 관례에 의함이 아니고, 민법에 의하여 20세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성년의 효과는 공법상으로 선거권의 취득(19세) 및 기타 자격 취득권(공무담임권 18세), 흡연, 음주 등의 제한이 해제되며(19세)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 능력이 되고,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 이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77년 3월 30일 대통령령에 의해 5월 16일(현재 5월 셋째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정하여 각 직장과 학교에서 성년에 달한 사람에게 간단한 선물을 주고

축하해 주는 간단한 행사를 실시하며, 선생님이나 친구, 주위의 친지들로부터 축하 전화, 전보, 엽서 등을 받기도 하면서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지켜야 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도록 한다.

◇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성년례 규정 ◇

제2장 성년례

제5조 (시기) 성년례는 만 19세가 되는 때부터 이를 행할 수 있다.

제6조 (성년례)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등이 성년예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성년례의 식순·성년선서 및 성년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년례의 식순

가. 개별 성년례

- (1) 개식 (2) 성년자 배례 (3) 축사 (4) 성년선서 및 서명
- (5) 성년선언 및 서명 (6) 초례 및 주례의 훈화 (7) 성년자 배례 (8) 폐식

나. 집단 성년례

- (1) 개식 (2) 국민의례 (3) 성년자 호명 (4) 성년자 경례 (5) 주례의 훈화
- (6) 성년선서 및 서명 (7) 성년선언 및 서명 (8) 내빈축사 및 답사
- (9) 성년자 내빈에 대한 경례 (10) 폐식

□ 성년선서

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오늘을 있게 하신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손의 도리를 다할 것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에 참여하고 신성한 의무에 충실하여 성년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성년자 ○ ○ ○ (서명 또는 인)

□ 성년선언

성년자 ○ ○ ○ 생년월일 년 월 일

그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자손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와 신성한 의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성년이 되었음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년 월 일

3) 화산동의 성년례

보령시 화산동에서는 괴동 노인회
(회장 : 박정순)를 중심으로 매년 성년례를
행한다.



화산동 고리굴의 성년례(2002. 2. 3)

4) 들돌들기

관례가 양반집안의 성년의식이라면 ‘들돌들기’는 서민들의 성년의식이다. 보령지방의 들돌은 주로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 있는데, 1개 또는 여러 개가 있기도 하다. 들돌은 성년의식으로 들기도 하였으나 정월 대보름, 칠월 칠석, 백중, 추석 등의 명절 때 놀이로 들기도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들돌을 들어 올리면 그 젊은이는 그날부터 어른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어른들의 품앗이에 끼게 됨은 물론, 품삯을 받을 때에도 어른의 품삯을 받을 수 있었다.

머슴의 경우에는 들돌을 들어 올리면 어른 몫의 새경(농가에서 머슴에게 주는 일년치의 품삯, 쌀로 줌)을 받을 수 있었다. 나이가 스물이 채 안 되었어도 들돌을 들어올린 사람은 어른 품삯을 받았으나, 스물이 넘었어도 들돌을 들지 못한 사람은 반 품삯 밖에는 받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 보령지방에서 들돌이 남아있는 마을은 주포면 봉당리, 주산면 화평리, 주산면 삼곡리 등이다.

(1) 주포면 봉당리 들돌

주포면 봉당리 조여환 씨 집에 있는 직경 52cm 무게 150여 근 정도 되는 모난 타원형의 돌이다. 이 돌을 땅뜨기나 가슴팍까지 들어 올리면 보통 일꾼, 등을 넘겨서 던지면 장사라 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 주었다.

(2) 주산면 화평리 들돌

주산면 화평리 화산내 마을의 정자나무 밑에는 직경 56cm 무게 118kg의 들돌이 있었는데 1996년 경지정리 공사 때 길 독에 묻혔다가 보령문화연구회에서 수소문 끝에 찾아내어 2005년 4월 발굴 원위치에 놓았다.



주산면 화평리 화산마을 들돌
(2005.4.17)

이 들돌은 보통 2사람이 들을 수 있는 돌인데, 장사는 들돌을 들어 정자나무 가지 사이에 올려놓기도 했었다고 전한다. 이보다 작은 들돌도 있었다고 한다. 현재 전해지는 들돌에는 ‘珠山面 花坪里 花山洞內’라고 새겨져 있다.

(3) 주산면 삼곡리 들돌

주산면 삼곡리 마을앞 들가운데에 수령 400여 년 된 정자나무와 선돌이 있고, 이 정자나무 밑에 2개의 들돌이 있다. 작은 것은 타원형으로 직경 50×26×30cm, 150여 근, 큰 돌은 모난 타원형 돌로써 직경 56×35×35cm, 무게 200근 정도 된다.



삼곡리 들돌(2008, 04)

이 큰 들돌은 옛날 김상구(생존했으면 110여 세)라는 분만 들었다고 한다. 그 외에는 땅 뜨기 정도는 했으나 무릅치고 가슴팍 들기나 등넘기기는 못했다고 전한다.

3. 혼례(婚禮)

혼례란 한 인격체인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합쳐져서 일생동안 함께하기로 하는 의식으로서 인격완성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위로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아래로는 자손을 후세에 존속시켜 조상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옛 사람들은 결혼을 인륜도덕(人倫道德)의 시원(始原)이며 만복의 근원이라 했으니 혼인은 우리 일생에서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1) 전통혼례

(1) 의혼(議婚)

혼인 연령은 과거에도 서로 달랐다. 현재 90세 이상인 세대에서는 결혼 적령기를 남자 16세 여자 18세 정도로 보았다. 따라서 신랑보다 신부가 2-3세 많은 것이 보통이었다. 그후 현재 70세 전후의 세대에서는 결혼 적령기를 남자 25세, 여자 23세 정도로 보았으며, 신랑보다 신부가 2-3세 적은 것이 일반적이었다.

배우자의 출신 지역은 주로 보령시이거나 또는 인접한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등이었다. 섬 지역에서는 같은 섬이나 이웃한 섬에서 배우자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 적령기가 되면 중매를 통하여 구혼하되 양가에서 서로 상대방의 문벌, 가풍, 당사자의 용모, 학식, 인품 등 모든 것을 참작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허혼(許婚)을 하였다. 고례(古禮)에는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매과를 보내 허혼(許婚)을 하였는데 근래에 와서는 혼인말이 오가면 중매를 내세우는데 보통은 남자측에서 여자 측에 보내지만 어느 쪽이든 관계 없다. 중매쟁이의 노력과 양가에서 서로 ‘곰과본다’ 하여 집안을 잘 아는 이들을 통하여 집안의 가풍 등을 속속들이 알아본 후 서로 의사가 있으면 맞선(맞간선)을 보는데 이 때 본인 뿐만이 아니라 중매쟁이와 양가의 집안 어른들이 참석하여 배우자의 사람됨, 집안의 근분, 가풍 등을 직접 알아본 후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데 당사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의견이 크게 작용하였다.

(2) 납채(納采)

양가에서 혼인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사주(四柱)를 보내어 약혼의 징표로 삼는다. 사주는 보통 신랑측에서 하인을 보내거나 중매쟁이를 통해 보냈다. 사주단자는 길이 1자 3치(약 40cm), 너비 9치 2푼(약 28cm) 정도의 백지를 5칸으로 접어 그 가운데에 신랑의 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를 간지(干支)로 쓴다. 이것을 접어서 봉투에 넣고 입구를 풀로 붙이는 쪽에 ‘근봉(謹封)’이라 쓰고 풀로 붙이지 않으며 붙이지 않는 부분에 ‘사주(四柱)’라고 아래로 써서 싸릿대나 대나무를 쪼개 그 사이에 끼운 다음 청홍(靑紅)실로 상하 전후를 감아 넘긴다.

사주는 속은 붉은 비단보, 겉은 푸른 비단보에 싸서 ‘근봉(謹封)’이라고 쓴 띠를 두른다. 사주를 보내기 전 신랑집에는 사당에 고하고, 신부집에서도 상 위에 공손히 받고 사당에 고하며, 사주를 가지고 온 사람을 융숭히 대접한다. 사주를 보내는 것은 음양오행에 따른 신랑의 타고난 운명을 적어 보내니 신부의 운명과 대조하여 궁합이 맞는지 확인하여 보라는 뜻이다.



사주(웅천읍 구룡리)

(3) 납길(納吉)

사주를 받으면 답례로 신랑집에 택일을 하여 보낸다. 이것을 납길 또는 연길(涓吉)

이라고 하고 전안월일시(奠雁月日時), 납폐월일시(納幣月日時)를 적어 보낸다. 택일은 신부집에서 하여 보내나 양가에서 형편에 따라 합의하여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리고 택일지를 받은 신랑집에서는 신랑의 의복 치수를 적은 글인 의제장을 보낸다.

(4) 납폐(納幣)

신랑집에서 보통 혼례식 전날 신부용 채단과 혼서(婚書)를 넣은 혼수함을 보낸다.

혼서는 신부에게 무척 소중한 것으로서 일부종사(一夫從事)의 의미로 일생동안 간직 하다가 죽을 때 관 속에 넣어가지고 간다 하였다. 그리고 혼서지에는 사실대로 기록 하였다. 상처(喪妻)하고 재혼하는 경우, 비밀로 하다가도 혼서지에는 사실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신부집에서 혼서지를 보고 재취로 시집가는지 알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채단은 보통 청색과 홍색의 비단 치마감을 말한다. 혼서와 혼수를 보내기 전 신랑집에서는 ‘관례 잔치’라 하여 사당에 제례를 지낸다.

혼례식날 신랑은 길 안내자, 신랑, 후행, 함진아비 순으로 초행을 가는데 신랑과 후행은 가마를 타고 간다. 하인이 함을 지고 도착하면 대문 밖에서 명석을 깔고 함을 안으로 들여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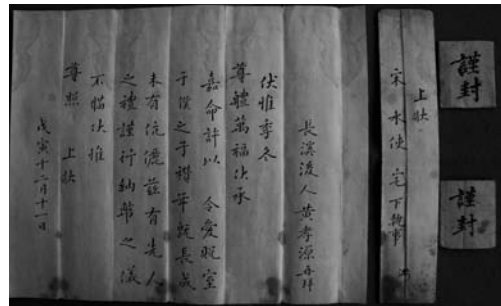
함진아비의 앞에는 몇 사람이 햇불을 밝혀드는데 이것은 옛날에 해가 진 뒤에 혼례를 치르던 유습이다. 옛날에도 함진아비들은 오늘날처럼 함을 선뜻 내려놓지 않고 장난을 했다. 납폐함이 들어오면 신부집 주혼자는 사당에 고한다.

[혼서지의 예]

上狀, 宋水使宅下執事

長溪後人 黃孝源再拜, 伏惟季冬, 尊體萬福 伏承, 嘉命之許以 令愛旣室, 于僕之子穉年旣長成, 未有伉儷茲有先人之禮謹行納幣之儀, 不備伏惟, 尊照 上狀

戊寅(1878) 十二月 十一日



혼서지(黃槿의 혼서지, 웅천읍 구룡리, 1878)

<해역문>

송 수사 맥 집사께 글을 올립니다.

장계(장수) 후인 황효원은 두 번 절하옵니다. 때는 늦겨울 설달이운데 존체 두루 평안 하옵신지요? 저의 아들 진(稹)이 나이 들었으나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던 차,

귀한 따님을 배필로 주심을 허락하심에 선인들의 예법에 따라 삼가 납폐의 절차를 행하오니 불비한 점이 있더라도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글을 올리옵니다.

戊寅(1878) 十二月 十一日 (송하순 역)

(5) 친영(親迎)

신부집에서는 신부가 칠보단장을 하고 신랑 오기를 기다리며 또한 대반(對盤, 접대하는 사람)을 보내어 신행을 영접하게 한다. 신랑 일행이 당도하면 신부집 사랑방이나 사처에 안내, 대기시키고 초순배(初巡杯)라 하여 간략한 음식상을 차려 대접한다.

혼례시간이 되면 납폐를 하고 신랑은 복장을 갖추고 식당에 들어간다. 신랑 신부의 복장은 집안 중중이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마련하여 두는 경우가 많았다.

친영은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로 진행되고 이 세가지를 합하여 초례(醮禮)라 한다. 그래서 혼례를 치르는 것을 초례를 치른다고 하고 혼례 치르는 곳을 초례청이라 한다. 초례청은 대개 신부집의 안마당이나 대청마루에 마련하고 뒤에 병풍을 치고 동서로 자리를 마련한 초례청의 중앙에는 초례상을 놓고 동서 양쪽에 합근례를 위한 술상과 손을 씻기 위한 세수대야를 준비한다.



초례청과 교배상, 신랑 신부
(1959. 웅천읍 구룡리)

① 전안례(奠雁禮)

신랑이 기러기아버와 함께 신부집에 도착하여 신부의 어머니에게 기러기를 드리는 예이다. 옛날에는 산 기러기로 예를 행하였다고 하나 근래에 와서는 나무 기러기로 대신 하며 대부분 마을에서 마련하여 두고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기러기는 한번 연을 맺으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짝의 연분을 지킨다 하여 신랑이 백년해로의 서약 징표로써 신부의 어머니에게 기러기를 드린다.

② 교배례(交拜禮)

교배상에는 대개 촛대, 대나무와 사철나무를 꽃은 화병 2개, 밥, 대추, 쌀 등을 올려 놓는다. 교배상에 반드시 암탉과 수탉을 쓰는데 상 위에 올려놓기가 어려워 대개 사람이 암탉과 수탉을 안고 양쪽에 섰다가 식이 끝난 후 날려보낸다. 닭은 신랑 신부가 수탉같은 신랑, 암탉같은 신부가 되라는 의미라고 한다.

- 신부가 수모(手母 : 시중드는 사람)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서쪽 가장자리에 들어선다.
- 신랑과 신부가 초례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선다. 처음으로 서로 상견하는 순간이다.
- 상견이 끝나면 신랑 신부는 시중드는 사람의 도움으로 세수대야의 물에 손을 씻는데 시늉만 한다.
- 신부가 수모의 도움을 받으며 신랑에게 두 번 절하고 신랑은 답례로 한 번 절한다. 신부는 여자 측, 음이기 때문에 짝수로 절하고, 신랑은 남자 측, 양이기 때문에 홀수로 절한다.
- 다시 한번 반복한다.
- 신랑이 신부에게 읊(揖)하고 신랑과 신부가 각각 꿇어앉는다.

③ 합근례(合胙禮)

술잔과 표주박에 각각 술을 부어 마시는 의례로써 처음 술잔으로 마시는 술은 부부로서의 인연을 맺는 것을 의미하며 표주박으로 마시는 술은 부부의 화합을 의미한다.

가. 신랑의 시반(시중드는 사람)이 술잔에 술을 따라 신랑에게 주면 신랑은 이를 마신다.

나. 신부의 수모가 술잔에 술을 따라 신부에게 입만 살짝 맞추도록 한다.

다. 신부의 수모가 표주박에 술을 따라 신랑에게 주면 신랑은 이를 마신다.

라. 신랑의 시반이 표주박에 술을 따라 신부의 입에 살짝 갖다 댄다.

(6) 신방

신방은 대례(大禮)를 마친 신랑 신부가 첫날밤을 치르도록 새로 꾸민 방을 말한다. 신방에 병풍을 둘러치고 화촉을 밝히고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신랑 신부가 환담한 후 상을 물린다. 신랑은 두루마기를 벗고 신부의 원삼 족두리, 활옷을 벗기고 왼쪽 버선을 벗긴다.

이때 가까운 친척되는 부인이 신혼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신방을 지켰다. 그런데 이 풍습이 변모하여 마을 부인들이 신방 문앞에 모여 문 창호지를 침 바른 손가락으로 뚫고 신랑 신부의 거동을 장난스럽게 살피는 풍습이 유행하였다.

(7) 우례(于禮)

우례를 우귀(于歸) 또는 신행(新行)이라 하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돌아가는 예이다. 이 때 신부는 혼수를 가지고 가며 신부의 집을 대표하여 상객(上客)이 따른다. 우리는 보통 대례 다음날 하며 신부가 도착하여 오면 신부가 걸어 들어오는 길에 잡귀가 떨어저라 하여 소금을 뿌리거나 쥘불을 놓는다. 안방으로 신부를 들이고 아랫목에 앉힌다. 그리고 요기상을 차려 요기를 하고 신부측 후행은 사랑으로 들인다.

(8) 현구고례(見舅姑禮)

신부는 새 옷에 원삼을 입고 폐백상을 차려 놓고 시부모에게 폐백을 드리는데 신부는 시부모에게 각 두 번씩 큰절을 한다. 폐백은 닭에 곱게 종이로 옷을 입혀 양쪽으로 밤을 물리고 대추를 실에 꿰어 동고리에 넣어온다. 큰절을 한 후 시어머니가 신부에게 대추를 한 주먹 원삼 치마 위에 던져주는데 이는 아들 낳기를 기원하며 자손이 번창하라는 뜻이라 한다.

시조부모는 현구고례가 끝난 다음 시부모가 신부를 데리고 가서 현구고례와 같이 폐백을 드리고 큰절을 한다. 친척 가운데 손위 항렬에는 신부는 평절로 하고 상대방은 맞절을 하지 않으며, 같은 항렬에서는 평절로 맞절을 하여 상호의 예를 행한다.

(9) 동상례(東床禮)

신랑이 우레 후 3일이나 며칠 뒤에 재행(再行)이라 하여 장인 장모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처가에 가면 마을 청년들이 신랑을 다룬다 하여 신랑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발바닥을 때리며 신부집에서 음식을 내놓을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는데 과도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수가 있었다.

(10) 근친(覲親)

근친이란 신부가 출가한 뒤 처음으로 술과 떡을 장만하여 가지고 친정 부모를 찾아 뵈러 가는 것이다.

2) 현재의 혼례

(1) 혼인 절차

① 만남

남녀 모두 혼인할 나이가 되면 배필을 구한다. 요즈음에는 서로 자연스럽게 사귀어 혼인하는 경우가 많다. 서로가 혼인할 의사가 있으면 부모님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중매혼인의 경우 혼인 당사자의 가정과 주변에 대하여 잘 아는 친척, 친구, 중매인이 나서서 서로 상대방에게 직업, 가족상황 등을 알려준 뒤 만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맞선을 보는 장소는 호텔커피숍이나 레스토랑 등과 같이 만나기 편리한 장소를 택한다. 당사자끼리 만나기도 하고, 중매를 선 사람이나 부모와 함께 만나기도 한다. 맞선 후에는 당사자들 사이의 교제 기간을 거쳐 계속 만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에는 결혼정보 회사가 많이 생겨 전문 회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배우자를 고르기도 한다.

② 약혼

두 남녀가 혼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굳어지면, 혼인에 앞서 약혼을 하게 된다. 사실상 약혼이란 혼인에 버금가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일단 약혼을 한 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파혼할 수 없다. 약혼식은 양가의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양가를 잘 아는 사람이나 중매자의 사회로 약혼 선언, 예비 신랑 신부의 약력 소개, 사주단지 전달 및 약혼 선물 교환, 양가 가족 및 친지 소개 및 환담의 순서로 진행된다.

요즈음은 약혼식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개는 양가의 부모들이 만나 상견례 하는 것으로 약혼식을 대신한다. 건전가정의례 준칙의 약혼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약혼) ①약혼을 하는 경우에는 약혼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가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의 제반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거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약혼 당사자는 당사자의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약혼서를 교환한다.

③ 혼인준비

혼인 준비는 혼수를 장만하고, 결혼식 날을 잡고, 예식장을 정하고, 주례를 정하는 일 등이다.

혼수로 신랑은 집 장만에 주력하고, 신부는 이부자리, 장롱, 전자제품 등 살림살이 준비에 주력한다. 또 신부는 신랑의 부모와 친척들에게 예물을 드리는데, 과다하여 신부집의 부담이 되기도 하고, 혼수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한다.

결혼식 날짜는 과거에는 전적으로 길일을 택하였으나, 현재는 하객들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공휴일이면서 좋은 날을 고른다. 그런 날은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예식장을 예약하기 어렵다.

주례는 학교의 은사님이나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는 인사로 초빙하고, 사회는 신랑의 친구들 중 말솜씨 있는 사람으로 고른다. 주례는 결혼식 전에 찾아뵙고 정중하게 부탁 드린다.

이어서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청첩장을 보낸다.

결혼식 전날 저녁에 과거의 납폐에 해당하는 함팔기가 있다. 함팔기는 신랑 집에서 혼서지 채단 등을 넣은 함을 신랑의 친구들이 메고 신부집 근처에 도착한다. 신랑은 먼저 신부집에 들어간다. 신부집 근처에서 신랑 친구들이 함진아비를 에워싸고 “함 사시오!”를 외치면 신부집 대표들이 나와서 협상을 청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 장난삼아 실랑이를 하다가 함값을 흥정한 후 신부집에 들어가 함을 내려놓는다. 이때 함 값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결혼식 전에 웨딩 사진을 찍는다. 신랑은 예복을 입고, 신부는 드레스를 입은 채, 야외로 나가 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을 결혼식날 식장 입구에 전시한다. 최근에는 사진과 함께 비디오도 촬영하여 결혼식 전에 보여주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찍은 영상물을 함께 보여주기도 한다.



함팔기(1994. 04 화산동)

(2) 결혼식

① 결혼식

예식장에서 행해지는 결혼식 절차는 다음과 같다.(2008년 4월, 보령시내 예식장)

1. 개식사 2. 화촉점화 3. 주례선생님 소개 4. 신랑입장 5. 신부입장
6. 신랑·신부 맞절 7. 혼인서약 8. 성혼선언 9. 주례사
10. 신랑·신부 부모님 및 내빈계인사
11. 케익커팅 및 축배 12. 신랑·신부 행진
13. 폐식사 14. 공지사항

이상의 절차로 예식이 끝나면 사회자가 신랑 신부에게 만세삼창, 입맞춤 등 짓궂은 주문을 하여 하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한다. 어떤 사회자는 무리한 주문을 하여 신랑 신부가 당혹해 하기도 한다.



예식장 결혼식(2008. 04. 대천동)

② 기념사진 촬영

예식이 끝나면 기념사진을 찍는다. 기념사진은 부부, 주례와 함께,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등 여러 장을 찍는다. 각 예식장마다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는 사진관이 있어 사진을 찍는다. 사진 비용이 많아 부담이 되기도 한다.

③ 폐백 및 피로연

사진을 찍고 난 후, 폐백을 드리는데, 식장 폐백실에서 하는 관계로 절차를 간단히 한다. 절은 두 번만 하고, 시부모님은 절을 받고 술을 받아 마시며 대추를 집어 던져주고 선물이나 돈을 봉투에 넣어 신혼여행 비용으로 주기도 한다. 신랑과 같은 향렬은 선후를 따라 맞절을 하기도 하고 답례를 하기도 하는데 시누이, 시동생과는 맞절을 한다. 또한 폐백드릴 사람이



결혼식 피로연(2008, 명천동)

많으면 예의에 어긋나지만 시간 관계상 여럿에게 한꺼번에 절을 하기도 한다.

결혼식이 끝나면 찾아와서 축하를 해 준 사람에게 감사의 뜻으로 피로연을 베푸는데 장소는 예식장에 딸린 식당 또는 가까운 식당이다. 요즘에는 축의금을 내고 곧바로 식당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까운 가족들은 예식이 끝나면 식사를 하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예식을 지켜보지 않고 식당으로 가서 식사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다.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는 하객들이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혼식 전에 날을 잡아 피로연을 여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도 대개는 예식장에 딸린 대형 식당을 이용한다.

④ 퍼레이드 및 신혼여행

폐백을 드린 후에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신랑 신부가 자동차로 퍼레이드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자동차에 풍선을 매다는 등 치장을 한다. 친구들과 함께 대천해수욕장에 다녀오는 경우가 많다.



신혼부부의 퍼레이드(2008, 궁촌동)

결혼식 절차를 마치면 대부분 신혼여행을 떠난다. 신혼여행은 결혼식을 마친 신랑 신부가 서로에 대한 애정을 깊게 하고 앞으로 시작될

새로운 공동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떠나는 여행이다. 1970년대에는 온양온천, 1980년대에는 제주도로 주로 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결혼 예식장(2008)



결혼 예식장(2008)

(4) 종교식 혼례

① 천주교식 혼례

성당에서 신부가 주례가 되어 의식을 거행하게 된다. 신랑 신부가 모두 카톨릭 신자이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결혼식 또한 엄격한 성교례규에 따라 거행되며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혼할 당사자와 부모는 신앙에 바탕을 둔 결혼이 되기 위하여 본당 신부를 찾아가 혼인할 때 신자로서의 준비와 예식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혼인 상담과 지도가 끝나면 혼인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성명, 세례명, 생년 월일, 본적, 현주소 등을 기재한 혼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당 신부의 혼인 승인이 나면 6개월 내의 것으로 세례 증명서와 호적 등본 한 통씩을 제출한다. 본당 신부는 당사자 한 사람씩 직접 만나 혼인 전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혼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증인을 만나 본다. 증인은 주변의 친구나 친척이면 된다. 이렇게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나면 본당 계시관이나 주보에다 혼인 공고를 한다.

결혼식을 올린다는 말을 천주교에서는 '혼배 미사'라고 하는데 혼배 미사의 날짜가 정해지면 혼배 공사를 하게 된다. 혼배 공사를 하는 이유는 신랑과 신부가 혼인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 보기 위한 것이다. 조당은 14가지 항목으로 신랑 신부가 혼인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면 신자들이 본당 신부에게 알려 혼인을 올리지 못하게 한다. 혼배 미사는 신부가 혼인하는 부부에게 강복을 비는 기구문으로 특별한 미사다.

보령지역에도 천주교 신자가 많아 천주교식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보령에서는 주로 대천성당에서 거행한다. 결혼식은 원칙적으로 여자쪽 성당에서 행해지며 사제는 교회법상의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교적에 기록한다.

<혼배 미사 절차>

- 입장식 : 입당송과 본기도
- 말씀의 전례
제1독서(창세기), 제2독서(고린도전서), 복음(마태복음), 강론의 순서
- 혼례식 : 신랑 신부의 동의에 이어 반지 축성과 예물 교환, 신자들의 기도
- 성찬의 전례
봉헌 기도, 감사송, 영성체송, 영성체 후 기도, 미사 후 강복으로 예식이 모두 끝난다.

천주교 혼례식 시나리오(대전성당, 2008)

- † 신랑 ()와 신부 ()는 아무의 강박도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혼인하려고 합니까?
신랑 : 예, 그렇습니다. 신부 : 예, 그렇습니다.
- † 두 분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평생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신랑 : 예,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신부 : 예,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 † 두 분은 하느님께서 주실 자녀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을 기르겠습니까?
신랑 : 예, 그렇게 기르겠습니다. 신부 : 예, 그렇게 기르겠습니다.
- † 두 분은 이제 거룩한 혼인 계약을 맺으려는 것이니 서로 오른손을 잡고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두 분의 합의를 고백하십시오.
신랑 : 나 ()는 당신을 아내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신부 : 나 ()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두 분이 교회 앞에서 고백한 이 합의를 당신 은혜로 확고하게 하시고, 두 분에게 복을 가득 내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할 것입니다.
- † 주님을 찬미합시다.
신랑 : 하느님 감사합니다. 신부 : 하느님 감사합니다.
- † 사랑과 신의의 표시로 서로 주고 받는 이 반지에 주님 친히
- † 강복하소서.

◎ 아멘

※ 신랑이나 신부가 신자가 아닌 때에는 괄호 안의 말을 생략한다.

신랑 : 나의 사랑과 신의의 표시로 당신께 드리는 이 반지를 받아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신부 : 나의 사랑과 신의의 표시로 당신께 드리는 이 반지를 받아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천주교의 혼배미사(2008, 대천성당)

② 기독교식 혼례

기독교에서는 결혼을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두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리는 맹세라는 점에 의의를 둔다.

교회를 예식장으로 사용하며 주례는 목사가 담당한다. 그러나 요즘은 예식장에서도 기독교식으로 혼례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교회에서 올릴 경우 일요일에는 예배 관계로 결혼식을 할 수 없다. 교회에서 예식을 올릴 경우 일반 예식장과 같은 예식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헌금으로 성의를 표하는 것이 보통이다.

혼인예배 순서(중앙감리교회, 2008)

- 집례 등단 ○ 결혼식사 : 집례자 ○ 기도 : 집례자
- 촛불점화 : 양가 어머니 ○ 찬송 : 다같이 ○ 성경봉독 : 집례자
- 입장 : 신랑 신부 ○ 결혼의사 확인 : 집례자 ○ 권면의 말씀 : 집례자
- 혼인서약 : 신랑 신부

신랑 나 ○○○는, 그대 ○○○를 아내로 맞아, 이제부터 평생토록 즐거우나 괴로우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도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합니다.

신부 나 ○○○는, 그대 ○○○를 남편으로 맞아, 이제부터 평생토록 즐거우나 괴로우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도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합니다.

○ 예물교환 : 신랑 신부

(신랑) 그대 ○○○,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반지를 오늘 우리가 맺은 언약의 증거와 우리 결혼의 영원한 사랑의 징표로 드립니다. 아멘

(신부) 그대 ○○○,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반지를 오늘 우리가 맺은 언약의 증거와 우리 결혼의 영원한 사랑의 징표로 드립니다. 아멘

○ 축복기도 : 집례자

○ 성혼선포 : 집례자

○○○군과 ○○○양이

오늘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거룩한 결혼식을 행하여 그 손을 서로 잡고 피차에 엄숙히 서약하였으니,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널리 알립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중앙감리교회의 결혼식(2008)

○ 축훈가

○ 광고 : 신랑 아버지

○ 축복기도 : 집례자

○ 인사 : 신랑 신부가 부모, 하객에게

○ 새출발 : 신랑 신부. 하객은 일동 기립.

③ 불교식 혼례

불교에서는 결혼식을 '화혼식'이라고 한다. 불교에 있어 부부란 전생에 맺어진 인연이므로 부처님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생각한다. 혼례식장은 절의 본당에 마련하는 것이 상례이며 불단 앞에 향로와 향촉을 놓고 그 뒤에 집전 스님의 자리 뒤에는 신랑 신부의 자리가 있고 그 옆이 양가 부모의 자리가 된다. 그리고 신랑 신부의 뒤는 내빈들의 자리가 된다. 신랑 신부의 위치는 부처님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왼쪽이 신랑, 오른쪽이 신부가 된다.

〈혼례 절차〉

○ 개식 : 종이나 폭죽으로 알린다.

○ 하객 참석 : 안내자가 신랑 신부 양가를 선두로 하객을 인도한다.

○ 주례 법사 등단 : 화동. 화녀의 안내로 집전할 스님이 등단한다.

○ 신랑 신부 입당 : 의식이 시작되면 집전 스님이 향을 피우고 불전에 세 번 절하고

독경을 한다. 이어서 집전 스님이 경백문을 낭독하는데 그것은 두 사람의 혼인을 부처님께 아뢰고 그 가호를 비는 것이다.

- 염주 수여 : 울리는 주악 속에서 신랑 신부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 절을 올린 다음 염주를 받는다.
- 분향, 서배, 축배 : 향을 피우고 혼인을 서약하는 예배와 혼인을 경축하는 축배를 올린다.
- 독경 : 이어 스님의 독경이 있다. 독경이 끝나면 양가 대표의 인사가 있고 신랑 신부는 퇴장한다.

3)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의한 혼례

(1) 해당 법규

제3장 혼례

제7조 (약혼) ①약혼을 하는 경우에는 약혼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가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의 제반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거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약혼 당사자는 당사자의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약혼서를 교환한다.

제8조 (혼인) ①혼인예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혼인예식의 장소는 혼인 당사자 일방의 가정, 혼인예식장 기타 건전혼인예식에 적합한 장소로 한다.
 2. 혼인 당사자는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3. 혼례예식의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4. 하객초청은 친·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간소하게 한다.
- ②혼인에 있어서 혼수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증여할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 한정한다.
- ③혼인예식이 종료한 뒤 행하는 잔치는 친·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
- ④혼인예식의 식순·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2) 관련 서식

혼인예식의 식순·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제8조제4항관련)

①. 혼인예식의 식순

- | | | |
|--------------------|----------------|---------|
| 가. 개식 | 나. 신랑입장 | 다. 신부입장 |
| 라. 신랑·신부 맞절 | 마. 혼인서약 및 서명 | 바. 성혼선언 |
| 사. 주례사 | 아. 양가부모에 대한 인사 | |
| 자. 신랑·신부 내빈에 대한 인사 | 차. 신랑·신부 행진 | 카. 폐식 |

②. 혼인서약

혼인서약

저는 ○○○양(또는 ○○○군)을 아내(또는 남편)로 맞아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또는 아내)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다.

년 월 일 ○○○ (서명 또는 인)

③. 성혼선언

성혼선언

이제 신랑 ○○○군과 신부 ○○○양은 그 일가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년 월 일 주례 ○○○ (서명 또는 인)

4. 회갑(回甲) 및 진갑(進甲)

1) 회갑

회갑은 태어나서 60년째 되는 생일, 즉 한국식 나이로 61세 생일이다. 환갑이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평균수명이 짧아 회갑까지 사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부모가 회갑이 되면 자손들로서는 큰 영광이고, 회갑을 맞이한 당사자로서는 큰 복이기 때문에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다. 부모에게는 자식을 키운 보람의 확인이고, 자식에게는 효도의 표현이었다.

회갑날은 부모 자식 모두 한복으로 차려입고 상을 받는다. 안방이나 대청에 병풍을 치고 회갑을 맞이한 당사자 부부가 앉고, 그 앞에 교자상을 놓는다.

상에는 대추, 밤, 꽃감, 산자, 다식, 약과, 떡, 고기 등을 차려놓고 자식들이 술을 따라 올린다. 먼저 큰아들 내외가 잔을 올리고 절을 하며, 다음으로 둘째 아들 내외 순서로 잔을 올린다. 나중에는 조카들이 올리고, 일가 친척들이 올린다. 이 때 회갑 당사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같이 상을 받고, 형제들도 같이 받는 경우도 있다.

집안이 부유하고, 자식들이 성공했을 경우 큰 교자상에 과일과 음식을 1자쯤 높게 차려 예를 갖추는데 이런 것을 ‘큰상’ 이라고 하여 큰 영광으로 알고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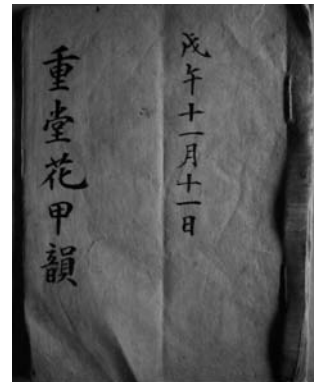
회갑상(1977, 웅천읍 구룡리)

회갑을 맞이한 부모에게 상을 차려 올리는 것은 오전 중으로 하고, 온종일 마을 사람들과 회갑을 맞이한 부모의 친구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마을 잔치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나 친지들은 회갑 잔치에 초대하는 청첩장을 받으면 축의금을 지참해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하였다.

선비들은 회갑을 맞이하여 서로 글을 주고받아 책이나 두루마리로 만들어 보관하기도 하였다.

평균수명이 늘어나 누구나 회갑을 맞이하고, 초대받는 친지나 마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1990년대 들어 회갑잔치는 점차 없어지게 되었다. 그 대신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70세나 80세에 칠순 팔순 잔치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축의금은 받지 않고 자식들 부담으로 부모의 친지들에게 잔치를 벌여 음식을 대접한다.



회갑 송축글 묶음
(청라면 내현리, 1918)

2) 육순(六旬), 진갑(進甲), 회혼례(回婚禮)

회갑 바로 전 해의 생일을 육순이라고 하여 일가친척들이 모여 성대한 생일을 보냈다. 회갑 다음 해에 맞이하는 생일을 진갑이라고 하는데, 이날도 일가친척들이 모여 성대하게 보냈다. 마을 사람이나 친지들에게 잔치를 베풀지는 않았다.

회혼례는 결혼 60주년에 자손들이 결혼 때와 똑같이 하며 잔치를 베푸는 것인데, 우선 부모가 건강해야 되고 자손 중에 잘못된 사람(죽거나,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극히 드문 예에 속한다.

5. 상례(喪禮)

상례란 사람이 운명(殞命)하여 장례를 마치고 탈상하기까지의 의식을 말한다. 최근 보령지방에 장례예식장이 생기고, 화장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상례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전통상례와 현재의 상례에 관하여 기술하고, 현재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는 상례와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의한 상례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전통상례

(1) 초종(初終)

① 운명(殞命)

임종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가족들이 평상시에 거처하던 방을 깨끗이 치우고 환자를 눕힌 다음 요나 이불을 새것으로 바꾸고 옷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힌다. 이 때 환자의 머리를 동쪽으로 하여 북쪽에 눕힌다. 유언이 있으면 지켜보며 듣고 집안팎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곡을 하지 않고 조용히 지킨다. 집안에서 임종하는 경우 방을 치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는 것 등은 예와 같으나 머리를 동쪽으로 눕히지는 않는다. 평상시처럼 편안하게 모신다.

일반인들은 운명하기 전에 혼이 나간다고 믿었다. 혼은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는데 불덩어리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혼이 나간 집에서는 초상이 난다고 믿었다.

② 수시(收屍)

수시는 시신을 바르게 함을 말하는데, 임종을 하면 눈을 먼저 감기고 깨끗한 솜으로 입, 코, 귀를 막고 반듯하게 눕는다. 두 팔과 손을 주물러 곧게 펴서 배 위에 올려놓고 다리는 반듯이 펴서 무릎을 맞대어 동이고 두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묶어 수족을 묶은 끈을 마주잡아 맨다. 그리고 이어서 칠성판에 시체를 올려놓고 흠이불로 덮고 병풍을 친다. 시체를 모신 방의 아궁이에는 불을 때지 않는다. 그리고 시신을 모신 방이나 아궁이에 고양이와 들어가면 시신이 거꾸로 일어선다 하여 상가집에서는 고양이를 주의한다.

요즈음은 대부분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사람이 나와 수시를 행하고 운구한다.

③ 고복(梟復)

고복을 초혼(招魂)이라고도 한다. 남자의 초상에는 남자가, 여자의 초상에는 여자가 죽은 사람의 상의(上衣)를 가지고 동쪽 지붕에 올라가거나 마당 가운데서 왼손으로 옷의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의 허리부분을 잡고 북쪽을 향해 옷을 휘두르면서 죽은 사람의 주소 성명을 왼 다음 “복! 복! 복!” 세 번 외친다. 이것이 끝나면 망인의 상의를 지붕 위에 던져 올렸다가 잠시 후 옷을 내려 망인 곁에 두었다가 입관시 관 속에 넣는다. 이는 죽은 사람의 혼이 북쪽 하늘로 가고 있다고 하여 혼이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는 것이니 이렇게 해도 살아나지 않아야 비로소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곡을 하는 것이다. 초혼을 한 후 상주들은 공석(집으로 만든 방석)을 깔고 머리를 풀고 곡을 한다.

그리고 초혼을 한 다음 사자밥을 차리는데 밥상에 밥 세 그릇, 물 세 그릇, 짚신 세 켤레, 돈 등을 놓아 촛불을 켜서 대문 밖에 놓는다. 이는 망인을 데리러 온 저승사자를 대접함으로써 편하게 모셔가 달라는 것이다.

요즈음은 임종이 주로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르기 때문에 고복의 풍습은 사라졌다. 가정에서 임종하여도 사자밥을 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자밥(죽정등, 1993)

④ 발상(發喪)

발상이란 초상난 것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다. 고복과 수시가 끝나면 아들, 딸, 며느리들은 머리를 풀고 옷을 갈아 입는다. 남자는 심의(深衣)나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여자는 흰옷을 입는다. 아버지 상에는 두루마기의 왼쪽 소매를 빼서 뒤로 넘기고 어머니 상에는 오른쪽 소매를 빼서 뒤로 넘기고 안 옷고름으로 조금 여민다.

상주는 부모상에는 장자가 되고 없으면 장손이 되며 처상(妻喪)에는 남편이 상주가 된다. 부모상에는 짚자리와 짚베개에 의존하여 호곡(號哭)한다.

요즈음에는 머리를 풀지는 않고, 상주의 경우 성복제 전에 두루마기의 팔을 빼서 입는 경우는 있다. 대개는 상복을 입기 전에는 평상복을 입는다.

⑤ 호상(護喪)

친척 또는 친지 중에서 상례에 밝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부고(訃告)의 발송, 조객의 내방, 부의록 작성, 금품출납 등 상례 일체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호상이라

한다. 호상은 목수에게 명하여 관을 만들게 하고, 친척들에게 고인의 사망을 알리기 위하여 상주와 호상이 의논하여 부고를 발송한다. 가까운 동네의 경우에는 인편으로 전달 하기도 했다.



일제시대 부고(1919, 웅천읍 구룡리)



부고함(2006, 청라면 장현리)

각 가정에서는 부고가 전달되면 부정과 관계가 있어 집 안으로 들여오지 않고 대문 밖에 부고함을 두고 넣어 둔다.

요즈음에도 집안의 어른이 장례를 주관하기는 하지만 부고를 보내지는 않는다.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로 연락을 취한다. 친목회 회장, 총무 등 몇 사람에게 연락 하면 서로 알려준다.

⑥ 전(奠)

망인을 생시와 똑같이 섬긴다는 의미에서 제물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시신의 동쪽에 놓인 제상 위에 집사자가 포와 과실 등을 올려놓고 잔에 술을 부어 제상 위에 올린다. 모든 초상 범절에서 주인은 슬퍼해서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집사자가 대신 행하는 것이다.

요즈음에는 장례식장의 제단 위에 과일 등 음식을 진설하여 제상을 차린다. 기독교를 믿는 경우는 십자가와 성경책을 놓는다. 제단 주변을 꽃으로 장식하는 것은 종교와 상관없이 모두 같다.

(2) 습(襲)과 염(殮)

① 습(襲)

습은 운명한 다음날 시체를 닦고 수의(壽衣)를 입힌 다음 염포(殮布)로 묶는 절차이다. 먼저 향나무나 쭉을 삶은 물로 시신을 정성스럽게 씻기는데 오늘날은 편의상 솜으로 짚어 바르며 머리를 빗기어 상투나 쪽을 지으며 비단으로 주머니 다섯 개를 만들어

빗질시 빠진 머리카락을 그 하나에 담고, 손톱, 발톱을 깎아 나머지 4개의 주머니에 넣었다가 대렴시에 원 위치에 놓는다.

② 소렴(小殮)

습이 끝난 후 시신에 수의를 입히는 절차인데 죽은 다음날 행하며 여자 시신은 여자가 입히고 옴은 남자가 한다. 대개 남자의 수의는 속저고리, 겹저고리, 속곳, 단속곳, 바지, 청치마, 홍치마, 원삼, 버선, 대대, 습신 등이다. 그리고 공통적인 수의는 이불류로 소렴금, 천금(이불), 지금(요) 베개 기타 복건, 두건, 망건, 명목, 충이, 악수, 속포, 턱받침 등이다.

옷을 입힐 때는 왼편으로부터 여미고 옷고름은 매지 않으며 손은 악수(握手)로 싸맨다. 이어서 장남이 나무로 만든 수저로 깨끗이 씻어 불린 쌀을 입에 3번 떠 넣고, 귀는 충이로 막고, 명목으로 눈을 가리고, 머리에 복건과 두건을 씌운다. 겹의로 된 이불로 고르게 싼 다음 장포(長布) 두 끝을 찢어 각각 매고 속포(束布)로 묶는다. 이 때 속포 한쪽 끝을 세 갈래로 찢어서 아래로부터 묶어 올라간다. 매를 맬 때는 여럿이 부축하여 옴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주관하여 한다.

집안에 연로하신 노인이 있을 때는 수의를 미리 만들어 두는데 윤년이나 윤달을 택해 준비해 두는 것이 습속이었다. 수의는 비단, 마직, 베 등 자연섬유를 재료로 하며 색깔은 흰색이 좋다. 수의를 지을 때에는 가시는 길에 막힘이 없도록 실의 매듭을 짓지 않으며 산 사람의 옷보다 크게 만들어야 입히기에 좋다,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경우는 상가에서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 수의 바느질을 해왔다. 현재도 노인들은 수의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고, 마련되지 않으면 장례식장에서 구입한다.

③ 대렴(大斂)

대렴이란 소렴이 끝난 다음날 시신을 입관하는 의식으로 대렴상 위에 횡포 두 폭, 장포 한폭을 펴고 그 위에 대렴금(大斂衾)을 펴놓고 시신을 옮겨 소렴 때와 같이 묶어서 관에 모신다. 관에 종이를 깔고 시신을 안치한 후 시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간에 생전에 사용하던 귀중품이나 옷 등을 넣어 채운다.

습(襲)할 때 만든 다섯 개의 주머니를 사방에 넣고 종이로 덮은 다음 안팎 상제 복인이 애곡하는 가운데 천개(天蓋)를 덮고 나무뿔 혹은 은장을 박고, 상하 표시를 하고, 남자의 경우에는 관뚜껑에 ‘學生(또는 직함)○○○(본관 및 성씨) 公之柩’ 라 쓰고 여자의 경우는 ‘孺人○○○(본관 및 성씨)之柩’ 라고 쓴다. 관을 종이 혹은 옥양목 살바로 매어 칠성관 위에 올려놓고 병풍으로 가리어 놓는다.

대렴이 끝나면 영좌(靈座)를 설치하고 혼백을 교의(交椅)에 모시고 명정과 공포를 바른편에 세워 놓는다.

명정은 길이 2m 정도의 붉은 빛깔의 비단 위에 흰색 글씨로 남자의 경우에는 ‘學生(또는 직함)○○○(본관 및 성씨) 公之柩’ 라 쓰고 여자의 경우에는 ‘孺人○○○(본관 및 성씨)之柩’ 라고 쓰고, 공포는 마포 5자로 만들어 아래위에 대나무를 꿰어 늘이는 것이다.

요즈음은 습과 대렴 소림을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며, 염습이라고 한다. 장례식장에서 숙련된 사람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옛 방식을 준수하여 깨끗하게 염습한다.

(3) 성복(成服)

성복은 입관 후 상복을 입는 절차이다. 복인은 모두 상복을 입고 영좌 앞에 주과포(酒果脯) 제수를 진설하고 축문없이 분향단작(焚香單酌)으로 제사하는 성복제를 지낸다. 이어서 남녀 복인은 서로 향하여 서서 곡을 하며 조부모와 백숙부모(伯叔父母)에게 절하고 친척과 조객이 문상한다. 성복은 성년된 아들은 건(巾) 위에 굴건(屈巾)을 쓰고, 마포로 된 상복을 입고, 행전을 치며 상장(喪杖, 아버지의 경우는 대나무, 어머니의 경우에는 오동나무)을 짚는다.

미성년자는 건 대신 상포로 머리를 싸매고 수질(首絰)을 쓰며 여상주는 수질만 쓰고 상복을 입는다. 복제 기간은 부모상에 3년을 원칙으로 하였다.

옛날의 이러한 성복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거추장스러워 오늘날은 크게 변하였다. 우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준비되는 상복을 선택해서 입는다. 남자 상주의 경우 전통 상복에 가까운 것이 마포 두루마기에 건, 행전을 하는 경우이고, 그렇지 않으면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한다. 여자들은 흰 치마저고리나 검은 치마저고리를 입는다. 그 외의 복인은 건과 행전으로 대신한다.

성복 기간도 1년 하는 곳도 드물어지면서 100일, 49일이 일반화되고 있다. 탈상을 100일 또는 49일에 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늘 상복을 입는 경우는 없다. 제를 올릴 경우만 입는 것이다. 성복 기간 동안 가슴에 상장을 달기도 하는데, 그것도 거의 하지 않는 추세이다.

성복을 하면 상식이라 하여 아침 저녁으로 술, 과일, 음식, 밥 등을 제상에 올려 생사와 같이 생각하는 의식을 행했었다. 이 상식은 탈상 때까지 계속되며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 아침에는 ‘삭망차례’라 하여 분향단작(焚香單酌)으로 제사를 지냈다.

장례를 치른 후 케연을 놓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식이나 삭망차례도 거의 없어졌다. 전통을 잘 지키는 특별한 집안에서만 행해진다.

(4) 문상(問喪)

보통 성복 후에 문상을 받는데 분향이나 묵념을 하고 재배하며 상주와 일배를 하고 부모나 승중(承中)되는 조부모, 남편이 죽었을 경우는 ‘망극’, 손 아래 사람의 경우는 ‘불안’ 등으로 상주와 인사를 나누며 여럿이 단체로 갔을 경우는 대표자가 행한다. 그리고 향상(香床)에 조의금을 놓는다. 조의금 봉투에는 보통 ‘부의(賻儀)’, ‘조의(弔儀)’ 등을 쓰고 왼쪽 하단에 주소 성명을 쓴다.

현재도 문상은 같은 방식으로 행해진다. 부의금은 빈소 입구의 부의함에 넣는다.

(5) 치장(治葬)

① 출상(出喪)

옛날에는 천구(遷柩)에 앞서 혼백을 사당에 모시고 가서 전(奠)을 올리고 다시 영좌에 돌아와 천구할 것을 고유(告諭)하고 상여를 운반하였다. 근래에는 바깥마당에 상여를 차려놓고 관을 상여에 모신 다음 그 앞에 병풍을 치고 제상을 진설해 놓고 발인제를 지내는데 상주가 술을 따라 올리고 축관이 축을 읽어 고했다. 관이 방에서 나올 때에는 관을 운구하는 사람은 뜰에 놓은 바가지를 밟아 깨뜨리면서 나왔다. 부정을 막기 위함이다.



상여집 내부(신흥동, 2008)



상여집(신흥동, 2008)

상여는 옛날에는 마을 상여집에 보관된 나무로 만든 상여를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일회용 꽃상여를 사용하고 장지에서 소각한다. 따라서 마을 상여는 이용하지 않으며, 상여집도 없어지고 있다.

발인제를 지낸 후, 상여는 상여머리를 세 번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마지막 하직 인사를 행한다. 상여를 메는 사람은 과거에는 12명이었으나 현재는 10명 또는 8명이 멘다. 대개는 마을 사람들이나 상주의 친목계원, 친구 등이 번갈아 멘다. 상여꾼에게는 상가집의

형편에 따라 수진, 운동화 등을 준다. 과거에는 상여가 지나가는 길에 벧짚으로 불을 놓기도 하였다. 깨끗하게 가라는 의미이다.

상여의 행렬 순서는 공포-명정-만장-영정-요령잡이-상여-상주-복인-조객 순이었으나 현재 만장은 사라졌다. 보령지방의 물에서는 요령을 흔들며 상여가 나가나, 섬에서는 주로 북을 치면서 나간다. 상여가 나가는 길에 망인의 친한 친구나 친족의 집을 지나게 될 경우 망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정성을 표하기 위하여 노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 또 상여가 출발하여 가는 도중에 멈추어 서서 상주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사위를 단다’고 하여 사위들이 돈을 내었으나 근래는 ‘상주를 단다’고 하여 상주나 사위가 돈을 내기도 한다.

과거에는 여자 상주들은 상여를 따라가지 않고 집에 머물렀으나 현재는 여자 상주들도 상여를 따라가 산에 오른다.



장고도의 상여행렬
(1960년대. 고 박계홍교수 사진)



상여행렬(1990, 웅천읍)

② 사토제(祠土祭)와 천광(穿曠)

장례일이 결정되면 묘자리를 보아 정한 후에 묘자리에서 고사를 지내게 되는데 시신을 보지 않은 사람이 묘자리를 파기 전에 지내게 된다. 묘자리의 선정은 지관이 동서남북의 방위와 오행에 의한 좌향을 따져 따듯한 곳, 화기가 없는 곳, 물이 고이지 않는 곳으로 선정한다.

이어서 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묘자리를 파게 되는데 삽이나 곡괭이를 가지고 사방에 금정기(井字 모양의 나무 막대기)를 박고 역군들이 파 들어간다. 일정한 것은 아니나 1.2-1.5m 판다.



천광(2008. 04 남포면 제석리)

내외 합장일 경우에는 서쪽을 위(上)로 삼아 남자의 자리로 정하고 반대편에 여자의 자리를 정한다.

현재는 묘자리를 파기 전에 제를 올리는 것이라든지, 지관을 불러 자리를 정하는 일은 예전과 같이 행한다. 특히 지관을 불러 묘자리를 정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작업은 모두 포클레인을 이용한다. 봉분을 만들고 묘역에 잔디를 심는 일 등은 마을 사람들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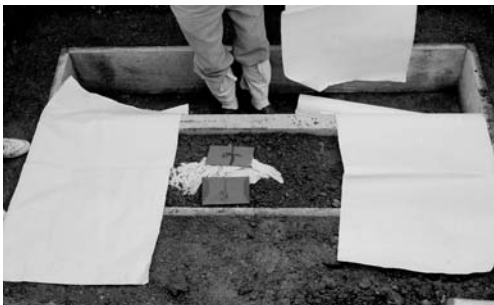
③ 하관(下官)

하관할 때 상주들은 곡을 그치고 판 물건이 떨어지거나 비뚤어지지 않는가를 살피면서 하관하는 것을 지켜본다. 하관 시각이 되면 복인은 영구를 운구하여 광중의 광에 모시고 공포로 관 위의 흙을 털어내고 명정으로 관을 덮는다. 상주는 현(玄 : 검은 비단)과 훈(纁 : 빨간 비단)으로 폐백을 드리되 현은 관의 동쪽에, 훈은 관의 서쪽에 놓고 곡하며 재배한다. 폐백이 끝나면 관 위에 횡관을 덮고(횡관은 홀수로 함) 상주가 2번 절하고 읊하고 나서 거기 있는 복인들은 모두 슬피 곡을 한다.

취토는 만상주가 고운 흙을 받아서 3번 떠 넣는다. 그 후 흙을 가래로 떠 넣어 성분한다. 성분 후 주변에 떼를 심고 마지막에 조카나 사위를 단다고 하여 마지막 뗏장을 입히지 않고 돈을 요구하는 장난을 하기도 한다.

관은 목관, 석관, 또는 석회로 내광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는데, 1980-1990년대에는 석관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석관을 사용하지 않고 목관을 사용했다가 매장할 때는 시신만을 매장한다. 목관은 상여와 함께 소각한다.

남포면 지역에서는 시신 위에 흙을 덮을 때, 약간의 석회를 섞어 넣고 여럿이 들어가 노래를 부르며 밟아 다진다. 이렇게 흙을 다지는 것을 주민들은 ‘흙다짐’이라고 부른다.



폐백(1990, 웅천읍)



흙다짐(2008. 04 남포면 제석리)



흙다짐(200. 04. 남포면 제석리)



무송윤씨 묘역의 회다짐 흔적
(웅천읍 관당리.1998)



성분제(2006. 웅천읍)



봉분 만들기(2006. 웅천읍)

④ 성분제(成墳祭)

광중의 흙이 지표와 평평해졌을 때 지내는 평토제(平土祭)가 있었으나 우리 지역은 대부분 봉분이 완성된 후, 성분제를 지낸다. 묘 앞에 혼백을 모시고 산에서 마지막 제사라 하여 풍성히 지낸다.

이어서 하산하여 대청이나 안방에 케연을 만들어 혼백이나 사진을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리고 우제를 지낸다. 망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유품을 케연 아래에 놓기도 한다. 이 케연은 탈상한 후 철거한다.

오늘날도 성분제는 모시는 경우가 많다. 장례식장에서 성분제를 지내겠다고 하면 제물을 챙겨주기 때문에 거의 같은 제물로 지내는 것이다. 케연은 대부분 설치하지 않는다.

(6) 제의(祭儀)

① 초우(初虞)

초우제는 장례를 모신 날 중으로 지내는데 묘소가 멀다 하여도 이 날을 넘기지 않고

해지기 전에 지낸다. 초우부터는 정식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 이외에 채소와 과일도 쓰며 제사를 지내는 동안 상주들은 방 밖에서 상장(喪杖)을 짚고 서며 그 밖의 참석자들은 모두 영좌 앞에서 곡을 한다. 초헌, 아헌, 종헌, 유식(侑食)이 끝나면 상주 이하는 밖으로 나가고 합문과 계문이 끝나면 모두들 다시 들어가 곡한다. 요즈음은 지내지 않는다.

② 재우(再虞)

초우제 후 첫 유일(柔日 : 乙丁己辛癸일)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초우제와 같은 방식으로 지낸다. 요즈음은 지내지 않는다.

③ 삼우(三虞)

재우를 지낸 뒤 강일(剛日 : 甲丙戊庚壬일)에 해당하는 날의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초우 재우 때와 같이 지낸다. 요즈음은 장례 후 삼일째 되는 날에 지내며, 이날이 지나면 상주들도 일상으로 복귀한다.

④ 졸곡(卒哭)과 부제(祔祭)

삼우가 지난 뒤 3개월이 지나서 강일을 당하면 날이 새기 전에 졸곡제를 지낸다. 절차는 우제 때와 같고, 졸곡이 지나면 아무리 슬픈 마음이 들어도 보통 때는 곡을 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만 곡한다.

졸곡을 지낸 다음 날 날이 밝기 전에 부제를 지내는데 망인의 신주를 사당의 조상 신주 곁에 모시는 제사이며 사당에서 지낸다. 신주는 나무패로 한다. 현재 졸곡, 부제 모두 없어진 제사이다.

⑤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禫祭) 길제(吉祭)

소상은 돌아가신 지 만 1년이 되어서 지내는 제사이다. 아버지가 생존하여 계실 때에는 어머니의 소상은 돌아가신 지 10개월 만에 택일하여 지낸다. 상주와 복인은 소상복으로 갈아 입는다. 남자는 수질(首絰)을 벗고, 상복에서 부관(負販)과 가령(加領)을 떼고 여자는 요질(腰絰)을 벗는다. 그리고 상주는 빨아서 다듬은 옷을 입는다.

과거에는 큰 제사로 친지들이 문상을 왔다. 초상 때 왔던 친지들도 모두 오고, 오지 못했던 친지들도 모두 모이기 때문에 가장 음식을 많이 준비해야만 하였다. 미리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장만하여 손님을 대접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지내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고, 1990년대 이후에는 없어진 제사이다.

대상은 돌아가신 지 만 2년이 지나 기일에 지내는 제사이다. 대상을 지낼 때에는 상주는 연복과 흰 직령(直領)을 입고 베로 만든 띠를 두르며, 흰 갓을 쓰고 백화(白靴)나 마로 엮은 신을 신으며 상장을 짚지 않는다. 제사가 끝나면 상복, 상장, 수질, 요질을 태우고 궤연을 치운다. 현재는 없어진 제사이다.

담제란 복을 다 벗는 제사이다. 그래서 탈상이라 한다. 담제는 대상을 지낸 뒤 3개월 만에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낸다. 현재는 없어진 제사이다.

길제는 담제를 지낸 다음달의 정일이나 해일을 택하여 사당의 신주를 고쳐 쓰기 위해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신주는 제사를 주관하는 주제자(主祭者)를 중심으로 하여 대(代)를 쓰는 것이므로 대가 바뀌면 고쳐 써야 한다. 오대조고비(五代祖考妣)는 사당에 모실 수 없어 그 신주를 묘소 옆에 묻는다. 그러나 대가 지난 신주라도 나라에 큰 공훈이 있어 나라에서 그 사당에 계속 모시기를 허락하면 별도의 사당을 지어 그 신주만 모신다. 이런 경우는 집안에서 큰 영광으로 안다. 오늘날은 사당이 없기 때문에 길제도 없어진 제사이다.

2) 장례식장에서의 상례

2008년 현재 보령지방의 장례는 100% 가까이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진다. 장례식장 현황과 장례식장에서의 장례 절차에 관하여 기술한다.

(1) 장례식장 현황

보령지방에 장례식장이 처음 들어선 것은 1970년대, 죽정동에 보령아산병원이 들어서면서부터이다. 당시에는 영안실에 딸린 장례식장이었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였다. 그 후 2000년 쯤 현재와 같은 보령아산병원장례식장이 만들어졌다. 내항동에 위치한 대천 장례식장은 2002년 설립되었고, 남포면에 위치한 보령장례식장은 2004년에 설립되어 장례문화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 대천장례식장이 만들어진 2002년도 무렵에는 전체 장례 건수의 약 80% 정도만 장례식장을 이용하였는데, 2008년 현재는 장례 건수의 거의 100%가 장례식장을 이용한다.

장례식장에서 장례 절차가 끝나면 발인하여, 각각 매장하거나 화장한다. 근래 화장하는 경우가 늘어나 장례 건수의 약 절반이 화장을 한다. 보령지방에는 화장장이 없어 주로 홍성 화장장(봉서원)을 이용한다. 화장한 유골은 남골당에 안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령 아산병원 장례식장(2008. 04)



보령장례식장(2008. 04)



대천장례식장(2008. 04)



장례식장 내부(2008. 04)



모란공원(2008)



개인 납골당(웅천읍 수부리)

(2) 장례식장 장례 절차

① 준비

상가로부터 연락이 오면 장의용품을 가지고 즉시 상가에 간다. 상가에 도착하면 상주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장소로 안내를 받아 가운데를 입고 시신 검사를 하기 위해 주변을 깨끗이 정돈하고 수시포로 시신을 덮는다.

② 시신 검사 시작

홀이불을 머리 부위만 벗기고, 눈과 눈동자를 살핀다. 다음 코 부위를 살핀다. 이어서

입을 열어 입안을 검사한다. 입을 검사한 후 입 주위를 맞사지하여 다물게 하고 덮는다. 흠이불을 배 부위까지 걷고 목, 가슴, 옆구리를 검사한다. 양손을 시신 양 가슴에 얹고 지그시 눌러본다. 다리와 팔 부위를 검사한다. 위와 같이 검시한 결과 이상이 없으면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긴다.

③ 수시(收屍)

- 한지로 장메 3개, 단메 3개를 접고 베개 1개, 칠성판 받침대 3개, 창호지 6장, 칠성판을 창호지에 싸서 상, 중, 하로 묶는다. 넓은 탈지면, 사자밥 3접시, 동전 3개, 망인의 적삼, 망인의 신발, 냉수를 준비한다.
- 오른손으로 시신의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엉치를 잡고 앞쪽으로 당겨 시신이 모르눅도록 하여 시신 밑에 칠성판을 넣어 시신을 위에 띄우고 받침대를 상, 중, 하로 권다.
- 장메 2개를 칠성판 밑에 넣어 어깨부위와 엉치부위에 놓고 단메 2개는 무릎 부위와 발목 부위에 놓는다.
- 한지 1장으로 시신 머리 좌우로 깔고 1장은 상하로 위에 깔아서 얼굴을 감싼다.
- 베개를 베인다.
- 한지 2장을 머리 쪽으로 덮고 어깨 밑에 있는 메로 힘껏 맨다.
- 시신 양 겨드랑이 밑으로 창호지를 깔고 양손을 펴서 배 위에 올려놓고 예쁘게 싸서 엉치 밑에 넣은 장메로 양손을 묶는다.
- 장메를 무릎 위부터 양 발 사이로 넣는다.
- 단메로 양 발을 세워 모으고, 발과 발 사이에 단메 한 끝을 넣고 우측으로 돌려 양 발을 묶는다.
- 무릎 밑에 넣는 단메로 무릎을 맨다.
- 무릎 묶은 메 밑에 있는 장메를 발 쪽으로 꺾고 양 발 사이에 있는 메를 무릎 쪽으로 꺾어 맨다.
- 발목 밑에 넣는 단메로 무릎과 발에서 맨 메와 같이 맨다.
- 메와 같이 맨 한지를 아래쪽으로 꺾고 시신을 덮는다.
- 분향소를 마련한다. 고인의 영전에 리본을 매고 혼백과 같이 놓고 양쪽에 촛대를 세우고 중앙에 향로와 잔을 놓아 영좌를 마련한다.
- 상주는 부 사망시 두루마기를 입을 때 왼팔을 내놓는다.(모 사망시는 반대임)
- 상주는 조객을 받는다.
- 장례 절차를 준비한다.

④ 연습

- 준비물 : 갓은 수의(도포-남자, 원삼-여자), 두루마기, 겹저고리, 겹바지, 속저고리, 속바지, 천금(이불), 지금(요), 장매, 치마(여), 악수(손싸개), 면모(얼굴싸개), 고깔(머리싸개), 베개, 버선, 오낭, 멧베 7쪽, 탈지면, 세정대, 알콜, 발목받침 3개, 긴메 2개, 기저귀 1개, 초석1-2묶음, 고깔 12-19개, 빗, 고무줄, 가슴덮개 1장, 턱받이 2개, 반얹(쌀, 동전3개, 버드나무 숟가락), 손발싸개, 한지 1/2 4장, 칼 2개, 명정, 예단, 혼백, 관바, 관보, 한지 9장(전체한지 30매)
- 칠성판을 밑의 받침대를 치우고 시신을 모로 세워 칠성판을 빼고 베개를 베인다.
- 홀이불을 덮고 상의 옆을 칼로 타개서 시신을 모로 세우고 상의를 빼고 시신을 다시 반듯이 안치한다. 가슴덮개 한지로 턱밑에서부터 가슴을 덮는다. 하의는 발쪽에서 당겨 벗긴다.
- 세정대로 어깨부터 시작하여 손끝까지 깨끗이 닦고 탈지면으로 재삼 닦아내며 가슴, 배, 다리, 발까지 깨끗이 닦는다. 시신을 모로 세우고 등도 전과 같이 닦는다. 기저귀를 채운다. (이때 홀이불을 잘 덮고 닦는다.)
- 바지가랭이에 손을 넣어 발을 잡고 가슴까지 올라오도록 바지를 입히고 발톱을 세 번 깎아 오낭에 넣어 발바닥에 붙여 한지로 발을 예쁘게 싸서 버선을 신기고 대님을 맨다.(발톱을 깎을 때 “발톱 깎습니다”라고 한다.)
- 홀이불을 벗긴다. 이때 가슴덮개 한지가 가슴을 잘 가려져 있는가를 확인한다. 바지 앞을 잘 여미고 허리띠를 꽉 맨다. 상의는 적삼, 저고리, 두루마기 소매를 한테 끼우고 양발을 약간 들고 아래에서 위로 목까지 올라오도록 입힌다. 속적삼을 여미면서 가슴덮개를 빼고 차례대로 잘 여미 웃고름을 맨다.
- 손톱을 깎는다. 이때도 발톱을 깎는 것과 같이 하여 악수를 씌워 맨다.
- 긴메 2개를 어깨 부위와 엉치부위에 넣어 옷을 잘 여미 메로 힘껏 맨다. (이 때 양손을 가지런히 배 위에 얹고 남좌여우의 순서에 따라 맨다.) 발목 받침대로 양발을 모아 발목을 맨다.
- 머리 쓴 한지를 벗기고 머리를 빗으로 잘 빗기어 단정히 하고 머리카락을 깎아 오낭에 담아 가슴에 넣는다. 이때 손, 발톱 깎을 때와 같다. 얼굴 덮은 탈지면을 이마, 눈 부위만 젖히고 세정대로 닦으며 입, 코, 귀 부위를 닦고 탈지면을 걷는다.
- 복인에게 정좌하게 하고 반합을 한다. 버드나무 숟가락으로 쌀을 한 번씩 떠서 입에 넣으면서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삼천석이요. 선창하면 복인들은 따라하며 동전을 한 개씩 놓으면서 천냥, 이천냥, 삼천냥 순으로 한다. 입 주위를 깨끗이 닦고 탈지면을 사용하여 맛사지하며 입을 완전히 다물게 한다.

- 복인들에게 시신의 얼굴을 보게 한 다음, 탈지면으로 얼굴을 씻우고 면막수를 씻우고 턱받이를 매고, 두건을 밑에서 위로 씌운다.
- 시신을 아래로 밀어 안치하고 멧배 7쪽을 상에서부터 하로 4쪽을 깔고, 발부터 상으로 3쪽을 시신 키에 맞추어 깐 후 장매, 지금, 천금 순서대로 깔고 시신을 옮겨 뒀다.
- 천금을 덮고 장매 쪽을 잘 여미어 어깨부위를 메로 짝 맨다. 영치 부위도 맨다. 장매를 상하에서 힘껏 당겨 매되 시신이 굽혀졌나를 잘 살펴 반듯이 맨다.
- 멧배는 머리부터 시작하여 12매까지 매고 발부터 시작하여 상으로 맨다. (이 때 고무줄을 사용하면 편하다.)
- 꼬깔을 상에서 하로 씌워 젖힌다.
- 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관 밑에 받침대를 상중하로 놓고 관을 엮어 관 안에 한지를 깔고 매를 상중하로 놓고 “입관이요”하면서 입관한다.(이때 상주 복인은 곡을 한다.) 관 뚜껑을 상하로 2/3만 덮고 주상이 예단을 올린다. 초석으로 관 안의 시신이 움직이지 않게 보공한다. 한지로 시신을 덮고 관 뚜껑을 덮고 관바로 3-5번 결관하고 예단을 올려놓고 명정과 관보를 덮어 염습 절차가 끝난다.

(3) 종교별 장례의식

① 기독교식 장례

기독교식 장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의 집례 아래 행하여지는데 이는 사람의 영혼을 운명 순간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시 뿐만 아니라 장례식 전날의 염습과 입관도 목사의 집례 아래 예배를 본다. 기독교식 장례는 분향을 하지 않으며 형편에 따라 헌화를 한다. 장례식과 장지에 도착하여 하관식까지 예배를 드림으로써 마무리 되는 것이다.

기독교식 장례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영결식

가) 개식사 : 주례목사의 개식사

나) 찬송 : 주례목사 선택(대개 423장이나 501장을 부른다)

다) 기도 :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족을 위로하는 내용

라) 성경봉독 : 대개 고후 5:1 디전 6:7(열왕기 상2장 1절-3절, 잠언3장 1절-3절)

마) 시편낭독 : 시편 90

바) 기도

사) 약력보고

아) 설교

자) 주기도문

차) 출관(出棺)

나. 하관식순

- 가) 찬송 나) 기도 다) 성경낭독
 라) 선고 : 목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선언함.
 마) 기도 바) 주기도문 사) 축도

② 천주교식 장례

임종이 가까워지면 가족들은 나중에 성유를 바를 수 있도록 환자의 얼굴 눈, 코, 귀, 손, 발 등을 깨끗이 닦아주고 새 옷으로 갈아 입힌다.

상 위에 백지나 혹은 백포를 깔고, 그 위에 십자고상과 촛대 둘, 성수 그릇과 성수채를 준비해 둔다. 그리고 환자의 의식이 남아 있을 때 신부에게 연락하여 성사를 받게 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 종부성사 : 운명할 때 행하는 성사로서 먼저 신부가 오면 촛대에 불을 켜고 고해성사(告解聖事)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은 물러가 있다. 고해성사가 끝나면 신부는 종부성사를 행하고 노자성체를 영해준다.
- 나. 임종전 대사 : 병자를 위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 주고, 거룩한 책들을 읽어준다.
- 다. 운명 : 임종이 다가오면 임종경을 읽으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 염경(念經)은 숨이 그친 뒤에도 잠시 동안 계속하는 것이 좋다.
- 라. 초상 : 숨을 거두면 시신에 깨끗한 옷을 입혀 손발을 제자리에 정돈해 둔다. 손은 합장을 시켜 묶거나 십자고상을 쥐어 주고, 눈은 감기고 입은 다물게 한다. 머리맡의 상 위에는 고상을 모시고, 그 좌우에 촛불을 켜며 성수를 놓는다. 입관할 때까지 이런 상태로 두며, 가족들은 그 옆에 꿇어 앉아 연도(練禱)를 한다. 염경이 끝날 때마다 시신에 성수를 뿌린다. 만 하루가 지나면 정해진 경(經)을 읽은 뒤 성수를 뿌리고 시신을 염한다.
- 마. 연미사 : 병자가 세상을 떠난 사실을 본당 신부에게 보고하고 연미사(위령 미사)를 청한다. 또 신부와 의논하여 장례일과 장례 미사 시간을 결정한다.
- 바. 장례식 : 장례일이 되어 출관(出棺)할 때는 모든 이가 함께 관 앞에 고상을 향하여 꿇어앉아 경을 읽는다. 이어 관을 들어 발인하여 영구를 본당으로 옮기고 연미사를 거행한 뒤 장지로 옮긴다. 관을 묻으면 사제는 성수를 뿌리며 마지막 기도를 올린다. 천주교에서는 화장을 금지하고 있다. 화장을 하면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으며 성당 묘지에 매장도 못한다. 장례 후 3일, 7일, 30일에, 또 소상과 대상 때 성당에서 연미사와 가족의 영성체를 행한다.

③ 불교식 장례

불교에서는 장례를 다비(荼毗)라고 한다. 임종에서 입관에 이르는 절차는 일반에서 행하는 장례식과 거의 비슷하며 다만 영결식에 있어서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개식 : 호상이 한다.

나. 삼귀의례(三歸依禮) : 주례승이 불(佛)·법(法)·승(僧)의 세 가지 삼보(三寶)에 돌아가 의지한다는 불교의식에서 항상 행하는 의례이다.

다. 약력보고 : 망인과 생전에 가까웠던 친구가 망인을 추모하는 뜻에서 한다.

라. 착어(着語) : 주례승이 망인을 위해 부처님의 교법(教法)의 힘을 빌어 망인을 안정시키는 말이다.

마. 창혼(唱魂) : 주례승이 극락세계에 가서 고히 잠들라는 것으로 요령(搖鈴)을 치며 한다.

바. 헌화(獻花) : 유지나 친지 대표가 한다.

사. 독경(讀經) : 주례승과 참례자 모두가 망인의 혼을 안정시키고 이 세상의 관계를 잊고 부처님 세계에 고이 잠들라는 염불이다.

아. 추도사(惆悼辭) : 초상에서는 조사라고 하며 일반에서와 같다.

자. 소향(燒香) : 일동이 함께 향을 피우며 망인을 추모, 애도한다.

차. 사홍서원(四弘誓願) : 주례승이 다음과 같이 한다. 더 훌륭한 것이 없으니 불도를 이루기를 맹세코 원한다는 것이다.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중생은 끝이 없으니 제도하여 주기를 망세하는 것.

번뇌무진서원단(煩惱無盡誓願斷): 인간의 번뇌는 다함이 없으니 번뇌를 끊기를 기원하는 것.

법문무량서원학(法門無量誓願學): 불교의 세계는 한량없으니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

불도무상서원성(佛道無上誓願成): 불도에 전념하는 것 이외에는 더 이롭이 없다는 것.

카. 폐식을 선언한다.

대개 이러한 순서로 형편에 따라 가감하기도 한다. 그리고 장지로 향한다. 불교에서는 대개 화장을 하는데 분구(焚口)에 넣고 다 탈 때까지 염불을 하며, 타면 법주(法主)가 흰 창호지에 유골을 받아서 상제에게 주어 쇠골(碎骨)한 후에 법주가 있는 절에 봉안하여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봉안한 절에서 39제, 백일제 내지 3년상을 치르면 봉안도에 사진을 떼어가는데 이것은 일반에서 퀘연을 철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료제공 : 보령장례식장)

3)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의한 상례

(1) 법조문

제4장 상례

제9조 (상례) 사망 후 매장완료 또는 화장완료시까지 행하는 예식은 발인제와 위령제를 행하되, 그 외의 노제·반우제 및 삼우제의 예식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발인제) ①발인제는 영구가 상가 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행한다.

②발인제의 식장에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향로 및 향합과 기타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한다.

제11조 (위령제) 위령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매장의 경우 : 성분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를 차려놓고 분향·헌주·축문읽기 및 배례의 순으로 행한다.

2. 화장의 경우 :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을 모시고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로 행한다.

제12조 (장일) 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제13조 (상기) ①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기타의 자의 상기는 장일까지로 한다.

②상기 중 신위를 모셔두는 케연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에 준하여 행한다.

제14조 (상복등) ①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복장, 양복일 경우에는 흑색 복장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②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시까지로 한다.

제15조 (상제) ①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가 된다.

②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③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제16조 (부고) 신문에 부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운구) 운구의 행렬순서는 명정·영정·영구·상제 및 조객의 순으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과도한 장식을 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발인제의 식순 등)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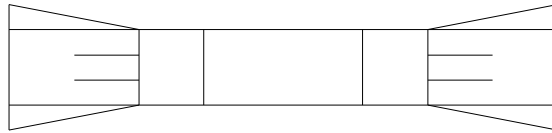
(2)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

1. 발인제의 식순

- 가. 개식 나. 주상 및 상제의 분향 다. 헌주 라. 조사
- 마. 조객분향 바. 일동경례 사. 폐식

2. 상장의 규격

- 가. 감의 크기(두겹)
- 나. 접은 모양)



6. 제례(祭禮)

1) 제례의 의미

신명(神明)을 받들어 복을 비는 의례. 제사(祭祀)라고도 한다. 원래 제례는 천지(天地)·일월성신(日月星辰)을 비롯하여 풍사(風師)·우사(雨師)·사직(社稷; 토신과 곡신)·산악·강천(江川)과 선왕(先王)·선조(先祖)·선사(先師)를 대상으로 하는 제사를 포괄하는 개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조상에 대한 의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그 의미가 축소되어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조선 시대에 조상숭배를 중시하는 유교가 한국사회에 정착함에 따라 대부분의 제사 대상이 그 의미를 상실하고, 제례는 단지 선조에 대한 의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서(禮書)에 나와 있는 제례의 종류는 사당제(祠堂祭)·사시제(四時祭)·이제(禰祭)·기일제(忌日祭)·묘제(墓祭)이다. 그러나 한국의 실제 관행에서는 이제와 사시제는 지내지 않고 차례(茶禮)라고 하여 사당제의 일부를 수용한 제례와 기제·묘제와 비슷한 시사(時祀)가 보편적이었으며, 이 밖에도 불천위제사(不遷位祭祀)와 생일제사 등 특수한 제례가 시행되기도 한다.

제례는 주로 친척끼리 밤에 지내기 때문에 남의 제례에 참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각 집안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전해오는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집안이라도 세대가 바뀌면서 문화가 일어나 엄밀하게 따지면 집안마다 형식이 다르다. 그래서 제례를 가가례(家家禮)라고도 한다. 필자가 1990년대 초 청라지역에서 조사한 바 조상상과 더불어

성주상이나 손님상을 따로 차리는 경우가 약 20%에 달하였다.

기독교를 믿는 가정에서는 제례를 올리지 않으며, 전통 제례를 올리던 가정에서도 최근 제례를 축소하거나, 아예 지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현재 남아있는 유교식 제례인 기제, 시제, 차례(節祀)에 대해 기술하고, 보령지방의 특색 있는 제례인 장고도의 제례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 기제(忌祭)

(1) 제례의 일시

기제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이다. 돌아가신 날 먼동이 틀 무렵인 궤명(厥明)에 제수를 진설하고, 날이 밝을 무렵인 질명(質明)에 제사를 올렸다. 그런 전통이 이어져 첫닭이 울기 전 새벽에 지내다가, 자정을 넘겨 돌아가신 날의 첫 시간에 지냈었다. 근래에 들어서는 일찍 지내는 경향이 있다. 제사에 참여하는 형제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 자정이나 새벽에 지내면 출근할 수가 없어 저녁식사 후 10시쯤 지내는 경우도 많다. 제일도 돌아가신 날 저녁에 지내는 가정도 있고, 돌아가신 전 날 저녁에 지내는 가정도 있다.

(2) 제례의 대상

과거에는 관직의 품계에 따라 4대까지 제사를 올리기도 하고, 부모 제사만 올리기도 하였으나 갑오경장으로 신분 제도가 철폐된 후, 4대 조상까지 기제사를 올리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고 한다. 근래까지 모두 4대 봉사하였으나 최근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조부까지만 3대 봉사를 한다든지, 부모 제례를 통합하여 아버지 제일만 지낸다든지, 조상 모두의 제례를 날을 잡아서 하루에 올리든지 하는 것이다. 최근 제례의 대상에서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3) 지방(紙榜)과 축문(祝文)

① 지방

원래 제사는 사당에 모신 신주를 가져다 놓고 지냈다. 그러나 요즘은 사당이 없기 때문에 신주 대신 지방을 써 놓고 제사를 모시는데, 지방을 쓰는 것을 ‘지방 닦는다’ 라고 한다. 지방을 닦으면 바로 조상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상이 깃드실 표상에 불과한 것이다. 제주의 분향과 강신 절차가 끝나야 조상의 신이 깃들어 조상이 되는 것이고,

조상이 떠나는 사신(辭神) 절차가 끝나면 지방은 다시 조상신이 깃들었던 표상으로 돌아간다.

지방을 쓸 때(뉘을 때)는 제주인 중손을 기준해서 쓴다. 아버지 할아버지 등 고위(考位, 아버지)는 성씨를 쓰지 않고 왼쪽에 쓰며, 어머니 할머니 등 비위(妣位, 어머니)는 성씨를 쓰고 오른쪽에 쓴다. 남편의 신위에 벼슬(직급, 직명)을 쓸 때에는 부인은 부인(夫人)이라 쓰고, 없으면 유인(孺人)이라고 쓴다.

각 경우별 지방 양식은 다음과 같다.

관 계	좌(左)	우(右)
부모	顯考學生府君神位	顯妣孺人○○(본관)○氏神位
조부모	顯祖考學生府君神位	顯祖妣孺人○○(본관)○氏神位
증조부모	顯曾祖考學生府君神位	顯曾祖妣孺人○○(본관)○氏神位
고조부모	顯高祖考學生府君神位	顯高祖妣孺人○○(본관)○氏神位
형	顯兄學生府君神位	顯兄嫂○○(본관)○氏神位
숙부모	顯叔父學生府君神位	顯叔母孺人○○(본관)○氏神位
남편	顯辟學生府君神位	
아내	故室孺人○○(본관)○氏神位	
아우	亡弟學生神位	
유사즉고시(有事則告時)	顯先祖考諸神位	顯先祖妣諸神位

② 축문

축문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무슨 일로 무엇을 하니,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읽는 내용이다.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정성을 쏟아 바르게 정자로 써야 한다는 뜻에서 ‘축을 닦는다’라고 한다. 전통적인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

歲次○○(제사 지내는 해 干支) ○月○○(초하루의 干支)朔 ○日○○(제일 干支) 孝子
○○(이름)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顯妣孺人 ○○○氏 歲序遷易 顯考學生府君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 清酌庶
羞 恭伸奠獻 尙

饗

○○년 ○월 ○일 큰아들 ○○가 감히 고하나이다.

아버님

어머님 씨 해가 바뀌어서 아버님 돌아가신 날을 다시 당하오니 영원토록 추모하는 마음은 은혜가 하늘같이 높고 넓어 끝간 데가 없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간략한 제물을 차려 정성을 다해 제사드리오니 흠향
하시옵소서

- * 諱日復臨은 ‘돌아가신 날이 다시 오니’의 뜻이므로 아내, 아랫사람의 경우는 망일부지(亡日復至)라고 씀
- * 昊天罔極은 ‘하늘과 같이 높고 넓어 끝간 데를 모르겠습니다.’의 뜻이므로 조부모(祖父母)이상에서는 ‘불승영모(不勝永慕, 깊이 흠모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내에게는 ‘불승비념(不勝悲念, 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방계친족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불승감창(不勝感愴, 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다)’ 라고 쓴다.
- * 謹以는 ‘삼가’의 뜻이므로, 아내나 아랫사람에게는 ‘자이(茲以)’ 라고 쓴다.
- * 恭伸奠獻은 ‘공경히 받들어 올린다’ 의 뜻이므로, 아내나 아랫사람에게는 ‘신차전의(伸此奠儀, 마음을 다해 상을 차린다)’ 라고 쓴다.

(4) 제수 진설 방법

① 신위를 본위로 앞에서 첫째 줄은 메(밥) 줄이다.

밥, 국, 잔, 시접, 촛대, 국수 등을 놓는다. 신위는 음의 세계로 갔기 때문에 밥과 국을 반대로 진설한다.

② 신위를 본위로 앞에서 둘째 줄은 적 줄이다.

서전동편(西煎東飴)라고 하여 서쪽에는 전을 동쪽에는 떡을 놓는다. 떡은 붉은 팔고 물을 쓰지 않는다.

어동육서(魚東肉西)라 하여 어류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고, 두동미서(頭東尾西)라 하여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으로 놓는다.

③ 신위를 본위로 앞에서 셋째 줄은 탕 줄이다.

육탕은 서쪽, 어탕은 동쪽, 소탕은 중앙에 놓는다.

④ 신위를 본위로 앞에서 넷째 줄은 채 줄이다.

서포동혜(西脯東醢)라 하여 포는 서쪽에, 절인 고기는 동쪽에 놓고, 생동숙서(生東熟西)라 하여 서쪽에는 숙채(익힌 채소) 동쪽에는 생채(생 채소)를 놓는다.

⑤ 신위를 본위로 앞에서 다섯째 줄은 과 줄이다.

홍동백서(紅東白西)라 하여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으로 놓고 서쪽에는 목과(木果), 중앙에는 덩굴과일, 동쪽에는 곡식으로 만든 조과(造菓)를 놓는다.

(5) 제례 지내는 순서

- ① 제사 준비 : 제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병풍을 치고 제상을 차린다. 자손들은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 ② 영신(迎神) : 제주가 대문 밖에 나가 조상님을 모시고 들어온다. 옛날에는 등불을 들고 나가 정중히 모셔왔다.
- ③ 신위봉안(神位奉安) : 지방을 모신다.
- ④ 분향재배(焚香再拜) : 제주가 두 무릎을 꿇고 앉아 분향하고 재배한다. 향을 피워 방안을 정화하고, 하늘에 계신 혼을 청한다.
- ⑤ 강신재배(降神再拜) : 제주가 꿇어앉아 향탁 위에 있는 강신잔을 들고, 집사가 술을 조금 따르면 제주가 향불에 돌린 후 모사기에 3회에 나누어 모두 지우고, 강신잔을 향탁 위에 놓고 일어서서 재배한다. 땅에 계신 백(魄)을 술로써 청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조상의 영혼이 지방에 깃든 것으로 간주한다.
- ⑥ 참신재배(參神再拜) : 제주 이하 모두 재배한다. 하늘의 혼이, 땅의 백이 모두 오셨으니 절하고 뵈는 것이다. 여자는 4번 절하였으나 요즈음은 2번만 한다.
- ⑦ 초헌재배(初獻再拜) : 제주가 첫잔을 올리는 순서이다. 제주가 들고 있는 잔에 집사가 술을 따르고 향에 3번 돌린 후, 집사에게 주어 고위부터 술잔을 올린다.
- ⑧ 독축(讀祝) : 축문을 읽을 때는 모두 꿇어앉아 머리숙여 묵념한다.
- ⑨ 아헌사배(亞獻四拜) : 종손부가 잔을 올리고 큰절로 4배한다. 근래에는 재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⑩ 종헌재배(終獻再拜) : 참례자 중 아헌을 한 사람의 다음가는 근친자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세 번째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종헌은 잔의 70%만 채워 올린다.
- ⑪ 첨작재배(添酌再拜) : 제주나 종헌자의 다음가는 사람이 주전자로 3번씩 따라 잔을 가득 채운다. 유식(侑食)이라고도 한다.
- ⑫ 개반삽시(開飯插匙) : 메의 뚜껑을 열고 수저를 앞쪽이 동쪽으로 가도록 쏜다.
- ⑬ 합문(闔門) : 조상이 마음 놓고 잡수시도록 자손들이 조용히 나와 기다리는 절차이다. 시간은 9숟갈 먹을 수 있는 시간으로 7-8분정도 공손히 서 있다.
- ⑭ 계문(啓門) : 제주가 ‘어흠’ ‘어흠’하고 인기척을 낸 뒤에 모두 들어간다.
- ⑮ 헌다(獻茶) : 국을 내리고 송냥을 올린다. 메를 조금씩 떠서 3번 말고, 숟가락을 물그릇에 반듯이 놓는다.
- ⑯ 낙시저(落匙箸) : 물그릇에서 수저를 거두고, 메그릇 뚜껑을 덮는다.
- ⑰ 사신재배(辭神再拜) : 제주 이하 자손들이 모두 재배하고, 지방과 축문을 태워 날려 보낸다. 이어서 제주가 대문밖까지 나가 전송해 드리고 들어온다.

⑱ 철상(撤床) : 제상 위의 제수를 내린다.

⑲ 음복(飲福) : 참례한 자손들이 제수를 나누어 먹고, 가까운 이웃과 나누어 먹기도 한다.

3) 차례(茶禮)

차례는 각 명절 아침에 고조 이하의 직계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옛날에는 사당에서 설과 매달 초하루, 보름, 한식, 단오, 칠석, 추석, 중구, 동지 등 각종 명절에 지냈으나 요즘에는 설과 추석에만 지낸다. 설에는 떡국을 놓고, 추석에는 송편을 놓고 지낸다. 밥과 국은 놓지 않는다. 보통 한 상에 조상들의 지방을



차례상

함께 모시고 지내지만 여유 있는 집에서는 조상 내외분씩 여러 상을 차리기도 한다. 축문도 없고 술도 한 잔만 올리며 첨작을 하지 않고, 합문도 하지 않는 간략한 제사이다.

4) 묘제(墓祭)

5대 이상 조상의 묘에 1년에 1회 지내는 제사이다. 보통 한식날이나 음력 10월에 날을 잡아 지낸다.

집안마다 종중(宗會)이 만들어져 있고, 종중에서 주관하여 지낸다. 묘제를 지내기 위하여 자손들이 종중(宗會)을 결성하여 토지를 마련하고 토지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제를 올린다.



묘제

5)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제례

제5장 제례

제19조 (제례의 구분) 제례는 기제 및 명절차례(이하 "차례"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20조 (기제) ①기제의 대상은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②기제는 매년 사망한 날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1조 (차례) ①차례의 대상은 기제의 대상으로 한다.

②차례는 매년 명절(설날 및 추석) 아침에 주손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2조 (제수)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제23조 (제례의 절차) 제례의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제24조 (성묘)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

6) 보령지방 제례의 특색

(1) 상차림의 특색

보령지방에는 제사에 조상을 위한 상과 더불어 성주상이나, 손님상, 수부상을 차리는 경우가 있다. 1991년경 필자가 민속학자인 스즈키 후미코의 설문지를 가지고 청라면 지역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 약 20% 정도가 조상의 제사를 모시면서 조상 이외의 신을 위해 다른 상을 함께 차린다고 답변하였다. 조상과 더불어 차리는 상은 대개 1상이었다.

성주상은 제상 옆 방 한켠에 차려 놓는데, 작은 상에 주과포 정도만 놓고 간단하게 차린다. 조상의 제삿날 집안의 평안과 부귀를 관장하는 최고의 신인 성주신에게 제를 함께 올리는 것이다. 상만 차리고 별도로 절하지는 않는다.

손님상은 조상신이 제사 음식을 먹으러 올 때 같이 있던 여러 신이 함께 오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제상을 마련하는 것이다. 방안에 들어오지 말고 먹으라는 뜻에서 마루에 차려놓는 경우가 많다.

수부상은 수부를 위한 상이다. 수부는 섬 지역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신을 말한다. 원이 많기 때문에 잘못 다루면 무서운 신이다. 주로 섬 지역에서 위하는 신이다.

(2) 장고도의 명절제사

오천면 장고도의 의례생활 중 기제사는 육지와 비슷하나 명절 제사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장고도에서 명절은 음력 선달 그믐, 정월 초하루, 정월 대보름, 추석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육지에서는 명절 때, 직계손(直系孫)의 집에서 조상을 위한 상을 차린다. 즉, 장남의 집에서 양친의 제사를 올리는 것이다. 조부모는 아버지가 차남인 경우, 아버지의 큰형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설날은 4대조를 지내는 직계의 집에 모여서 제사를 올린 뒤 각 방계(傍系)의 친족은 각각의 조상에 대한 제사를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장고도에서는 모든 집에서 증조부(曾祖父)까지 지내는 것이 관습이다. 그 때문에 설날에 작은 집이 큰집에 모여서 함께 제사 지내는 일은 없다. 부자(父子), 형제 모든 독립한 가구라면 모두 3대까지의 조상과 성주상을 각 가정에서 차린다고 한다.